

Social
Project

2018 art

changes

Socul

SOCIAL PROJECT 2018

우리가 만난 '소셜'에 관한 이야기

About Social Project

Teams of Social Project

낫이너프타임	8
드르르륵	22
로로브레인 주식회사	38
리마크프레스	48
무궁무진스튜디오	62
선잠52	74
소셜씨어터	86
스페이스 원	100
시각	112
R3028	120
우리마을 탐구생활	136
을지로 르네상스	148
임팩트스테이션	162
지보이스	178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	188
컨템포로컬	204

소셜프로젝트는?



결과공유회 스케치 영상



ABOUT

ABOUT SOCIAL PROJECT

2018 〈서울을 바꾸는 예술: 소셜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발굴할 예술가, 기획자 그룹을 공모하여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총 16팀을 선정하였고, 다양한 색깔과 형태를 가진 개별 프로젝트의 이야기를 긴 호흡으로 함께 듣고 보았습니다.

소셜프로젝트는 예술과 소셜이 어떻게 만나는가를 질문합니다. ‘소셜’의 요소라 할 수 있는 지역, 사람, 공간이 어떤 모습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참여자와 지역이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함께하는 예술가와 기획자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 간의 느슨한 연대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특히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예술'의 다양한 모습과 여러 관계들이 어떻게 만나 각각의 이야기를 만드는지 계속 질문을 던지며 그 이야기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작가와 작가의 관계, 기획자와 작가의 관계, 작가와 여러 참여자 간의 관계, 지역과의 관계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예술의 다양한 변주를 각각의 사례로 그려 보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확장해나갈 여러 가능성을 확인하며 각 이야기의 '다음'을 함께 고민하고 그려 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본 결과집에서는 16팀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만나고자 했던, 만났던, 만나고 있는 '소셜'에 관한 이야기와 직접 각 프로젝트를 분석한 리뷰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6

낮
이너프
타임

not
enough
time





낫 이너프 타임은 시대를 반영하는 제치 있는 아트워크를 통해 지금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야 할 화두를 던지고, 다양한 실험과 매거진, 전시의 형태로 대중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낫 이너프 타임에게 소셜프로젝트는 시도와 모색의 과정이다.

이번 소셜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뉴 브랜딩을 소개하고, 지역에서
파급되는 과정을 통해 디자인과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실험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설립연도	2015년
법적형태	비영리단체
단체규모	5명
활동분야	#디자인 #패션 #문화예술 #브랜딩 #도시재생
홈페이지	www.not-enoughtime.com



1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동대문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그것을 하나의 문화적 흐름으로 재생하려는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며, 지역 기반 제품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브랜딩하고자 하는 팀의 방향성과 아울러 의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원단 처리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이번엔 진행하신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본 프로젝트에서는 뉴 브랜딩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뉴 브랜딩뿐 아니라 소재 간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부여를 시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뉴 브랜딩이 지역에 파급되는 과정,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을 실험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전시명은 <Patch Week>입니다. <Patch Week>는 'Patch work'와 'Fashion week'의 합성어로,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폐기 원단에 대한 고민을 패브릭 업사이클링으로 풀어내어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을 실험하는 전시입니다.

3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폐원단의 이용 실태와 이동 경로를 알기 위해 의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곳을 방문하여 이야기 나눈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동대문 종합상가를 시작으로 소상공인협회와 원단협회를 거쳐 경기도에 위치한 폐원단 수거업체까지 방문하며, 관련 산업의 메커니즘을 알 수 있었고 각 단체의 가치관과 애로 사항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4 2019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디자인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수행, 기업과의 콜라보 등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팀의 방향성에 맞는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의사소통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패션, 디자인, 도시재생, 문화예술 등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매거진·전시 등의 형태로 대중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다양한 실험과 재미있는 시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PATCH WEEK

PATCH WEEK

PATCH WEEK

**MORE
LESS**

PATCH WEEK

[illegible]

성과적 측면 / 사업 실현 성과

계획대비 프로젝트 실현 정도 :

초기 계획 및 예산 대비 프로젝트의 내용과 질적인 수준이 모두 적절하게 구현이 되었는가?

기획했던 프로젝트 및 세부 프로그램들을 모두 계획대로 운영하였는가?

낮 이너프 타임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디자인을 바꿔 제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닌, 원도심 문제와 폐원단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중심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폐원단이 발생하는 의류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원단 이용과 폐기 실태 및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관련 종사자들을 만나 이야기 나눴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한 전시 <Patch Week>는 'Patch work'와 'Fashion week'의 합성어로,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폐기 원단에 대한 고민을 패브릭 업사이클링으로 풀어내어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을 실험하는 전시다. 직조 과정 중 올 풀림, 이염, 보관 부주의로 인해 폐기된 원단을 매입하여 낮 이너프 타임만의 디자인을 덧입힌 프린팅, 본딩, 패치워크 등의 후가공을 통해 일상 속의 흠웨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이를 전시했다. 소재 간의 결합과 융합, 폐원단의 단조로운 패브릭에 새로운 시도를 더하는 등 업사이클링의 가치를 모색하며 뉴 브랜딩을 통한 색다른 사용법을 제안했다.

사업 지역 내 문화예술적 변화의 정도 :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및 커뮤니티 속 문화예술적 공감대가 확장되고 변화하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인가?

전시중에는 전시지킴이가 상주하여 이음피움봉제역사관 방문객과 전시 관람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시의 의미와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워크숍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원단을 후가공하는 방법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장에는 도시재생 분야 지역 활동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 과거 봉제 업체 종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했다.

홍보 성과

사업기획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효과성 :

사업 기획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웠는가? 그 홍보 방식이 외부 단체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나?

사업을 진행하며 만나는 소상공인협회 및 원단협회 관계자, 의류 산업 관련 종사자와 소통하며 프로젝트의 취지를 소개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졌다.

지역 내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노력도 :

지역 내 단체 및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는 어느 정도 노력하였는가? 그 홍보의 방식은 효과가 있었는가? (기사, SNS, 오프라인 홍보물 등)

프로젝트에 관한 홍보는 동대문 지역과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홍보를 위한 배너,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주민센터 및 지역의 대안 공간에 홍보했다. 전시가 진행된 이음피움봉제역사관에서도 인근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었다. 전시에는 인근 지역 활동가 및 의류 산업 종사자, 관광객, 지역 주민 등이 주로 방문하였고, 전시지킴이가 상주하여 전시 및 워크숍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SNS를 통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외에 언론 홍보 등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파급효과적 측면 - 단체의 성장

단체의 역량 강화의 정도 :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지역 및 커뮤니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가?

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었는가?

낫 이너프 타임은 Artist, Visual director, Photographer, Fashion designer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으로, 2015년부터 서울·경기·인천을 중심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전시,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패션, 예술, 도시재생과 관련된 실험을 시도해온 과정에서 팀원 각자의 역량은 물론 팀원들의 단체 내 역할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 능력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이번 활동에서도 팀원들이 Artist, Visual director, Photographer, Fashion designer로서 각자 전문 분야의 역량을 살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팀원들의 역량과 다양한 시각 속에서 다채로운 활동과 시너지가 만들어져 프로젝트에 담겼다. 앞으로도 팀내 역량 강화, 지원사업 수행, 기업과의 콜라보 등 무형·유형의 다양한 시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

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지속적인 프로젝트 및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방법 및 고민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가?

또 다른 형태로 디자인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 팀 내 역량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며, 지원사업 수행, 기업과의 콜라보 등 무형·유형의 다양한 시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한 영향력

이슈 키워드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기여도 :

기존에 선택하였던 사회 이슈 키워드 및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문제에 대해서 단체가 목표한 결과 및 성과가 효과적이었는가?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폐원단을 중심으로 환경문제, 원도심문제에 대한 업계 종사자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폐원단을 이용한 개별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전시 공간 전체를 새롭게 브랜딩했다. 그 결과 각 전시물의 매력이 돋보이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가지는 전시를 완성했다.

해당 이슈에 대한 고민의 깊이 :

사회적 이슈와 키워드에 대해서 단체만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였던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동대문은 과거 패션의 메카이자 의류 산업의 중심지로, 지금도 봉제 산업과 의류 공장이 산업단지를 이루고 있다. 지금의 동대문은 관광객 감소, 인건비 증가, 산업시설 노후, 의류산업 쇠락 등을 이유로 도심부(원도심) 산업 밀집지역이라는 장소성을 고려한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동대문 지역에서 다양한 업사이클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한번의 프로젝트와 전시로 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폐원단의 업사이클링 방안, 환경 문제, 디자인과 브랜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폐원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었다.

직접 현장에 가보니 원단 폐기처, 판매처가 미리 정해져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라 폐원단 업사이클링을 제안하기가 쉽지 않았다. 본 프로젝트의 작업이 단발성이고 요청하는 물량도 적다 보니, 협업을 요청했을 때 업체 담당자 및 기술자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 폐업하는 곳이 아닌 이상 당연히 기존의 원단 폐기처와 판매처를 유지하려는 곳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 쉽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폐원단의 이동 경로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성과라 생각한다.

드르르륵

brrrt





드르르륵에게
소셜프로젝트는 연결이다.

소셜프로젝트가 없었다면
헌인마을에서 생기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았을 연결들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드르르륵(BRRRT)은 예술가, 연구자, 디자이너가 공동 연구와 창작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설립연도	2018년
법적형태	개인사업자
단체규모	4명
활동분야	#기록 #장소 #연구 #영상 #공공미술
홈페이지	www.brrrt.kr



1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현인마을은 1964년 한센인들이 모여 살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1990년대 후반 한국 제1의 가구 공단으로 성장했으나 2000년대 초반 추진된 초호화 빌라 재개발 사업의 부도로 주민의 70% 이상이 떠나게 된 후, 지난 30여 년간 형성된 지역의 공동 문화가 거의 소멸된 임시적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몇백 년이 걸리는 장소의 생성과 소멸을 이처럼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겪는 과정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쓸모없다고 여겨 버려진 것들은 그 가치를 생각해 볼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채 사라져 갑니다. 현인마을 사람들의 삶과 기억 역시 어느 순간, 마치 존재한 적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폐기된 것들, 유기된 것들, 사라져가는 것들을 관찰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가 가진 가치와 욕망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 이번에 진행하신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드르르록 플랫폼은 현인마을 안 오래된 식당이 있던 공간에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세 명의 참여 작가와 한 명의 디자이너가 현인마을에 대한 공동 연구와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정재경 작가는 마을 안에서 점차 늘어나는 유기견들을 관찰, 추적하고 마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인터뷰를 통해 버려진 유기견 이야기 안에서 드러나는 마을의 기억과 현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영상작업 〈어느 마을이야기 초고〉를 통해 마을 안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임수진 작가는 마을에 있던 가구점과 공장들이 이주하면서 오랜 시간 버려져 있던 의자들을 마을 가구 장인들과 함께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가구들의 이동 경로를 기록하고 새롭게 디자인한 가구는 〈한 개의 테이블, 그리고 아홉 개의 의자〉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여 마을의 이야기를 외부와 공유했습니다.

황소인 연구자는 〈시스템과 생기〉라는 제목으로 마을 연구 텍스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시아 하이웨이(Asia Highway)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시스템과 시스템의 구석이 된 현인마을이 어떻게 또 다른 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의미를 지니는지 추적했습니다.





세 명의 작가들과 박채희 디자이너가 4개월 동안 관찰하고 추적한 헌인마을의 길, 빈 공장, 텃밭, 의자가 버려진 곳, 유기견이 사는 곳, 조합, 폐기물³³ 수거장, 자동차 도색장, 무단 장기 주차 지역, 무단 쓰레기 투기 위치 등을 하나의 지도 위에 모아 〈헌인마을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결된 세 개의 프로젝트와 지도는 웹사이트와 출간물로 발행했고 헌인의 역사와 사건, 마을의 현재와 그 안의 삶, 그리고 여기에 더해진 관찰과 시도들을 기록하고 마을 안팎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3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정재경 작가:

재개발로 가구 공장이 이주하는 상황에서 한 가구 공장 주인이 키우던 강아지를 마을 폐기물 처리 담당 아저씨에게 반강제적으로 맡깁니다. 아저씨는 가끔 끼니를 거르시는 등 경제 형편이 넉넉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자동차에 치이자 아저씨는 열 달 동안 1,600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들여 강아지를 살려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 더 많은 돈을 향한 욕망으로 황폐하게 파괴된 마을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실에서 펼쳐진 이 동화³³ 같은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임수진 작가:

쓰레기 더미가 쌓인 길가에 의자를 주우러 갔을 때 갑자기 머리까지 하얀 옷을 뒤집어쓴 사람들이 튀어나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폐허 같은 마을 풍경을 배경으로 미래적인 옷을 입고 영화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비밀스러운 실험, 위험한 화학 물질 폐기 같은 일들이 몰래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상상. 마을이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공간이지만 그 위에 비현실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외부인의 상상이 덧입혀지는 풍경을 목격한 경험이었습니다.

4 2019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2018년에 진행한 헌인마을 기초 연구 관련 활동을 외부에 지속해서 공유할 계획입니다. 영상 상영, 웹사이트와 인스타그램을 통한 가구 홍보, 출간물 유통 등을 통해 지난 4개월간 수집·기록한 헌인의 이야기를 마을 안팎에서 나눌 것입니다. 더불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분야 전문가 집단과 함께하며 공동





연구와 창작 활동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인마을의 지역적 현실성을 기반으로 현재 우리가 처한 보편적 문제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 연구, 기록하고 공유하면서 드르르록의 활동을 심화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현인마을 뉴스테이 플랫폼 프로젝트>의 사업리뷰

성과적 측면 / 사업 실현 성과

계획대비 프로젝트 실현 정도 :

초기 계획 및 예산 대비 프로젝트의 내용과 질적인 수준이 모두 적절하게 구현이 되었는가?

기획했던 프로젝트 및 세부 프로그램들을 모두 계획대로 운영하였는가?

지역민, 전문가와 긴밀히 협업하여 계획한 성과(영상, 재생 가구, 출간, 웹사이트)를 실현하고 현인마을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매체와 플랫폼을 개발했다. 마을 현황을 상징, 은유하는 주제로 4개월간 주민과 함께 영상, 가구, 지도를 제작하면서 문화 예술을 통해 마을 문제를 논의하고 재인식하는 실천 과정이 있었다.

사업 지역 내 문화예술적 변화의 정도 :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및 커뮤니티 속 문화예술적 공감대가 확장되고 변화하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인가?

실제 사업 실행 단계에서 마을의 특수한 상황(실주거민 70명 내외)으로 인해 지역민과 밀착 교류 형식으로 변화를 이끄는 활동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했다. 마을이 지역 고립에서 벗어나 외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자각하고 이를 사업의 주요 전략으로 수립, 실천했다.

사업기획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효과성 :

사업 기획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웠는가? 그 홍보 방식이 외부 단체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나?

문화예술 연구·창작자의 관점에서 헌인마을을 연구하고 프로젝트 웹사이트, 출판물을 통해 마을의 기록을 대외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했다. 그 결과 헌인마을 관련 웹사이트, 출판물, 마을지도가 국내외 문화·학계, 도시정책·계획 관련 정부 기관 및 민간 기관 등에 배포 중이다.

지역 내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노력도 :

지역 내 단체 및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는 어느 정도 노력하였는가?
그 홍보의 방식은 효과가 있었는가? (기사, SNS, 오프라인 홍보물 등)

주거민과 직접 교류하며 재생 가구를 제작 및 유통하고, 유기견 등을 주제로 한 마을 관련 영상을 만들어 단체 사업에 대한 마을 주거민의 이해를 높였다.

파급효과적 측면 - 단체의 성장

단체의 역량 강화의 정도 :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지역 및 커뮤니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가?
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었는가?

헌인마을에서 드르르륵(BRRRT) 이전에 다른 예술 단체의 활동은 전무했으며, 본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에 대한 기초 연구와 창작 작업이 이루어지고 주민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었다. 주민과 함께하는 가구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적 창의력과 마을의 숙련된 제작기술이 만나 새로운 창작-경제 생태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헌인마을 중심의 영상, 연구, 지도 개발 등 다각적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 대한 구술 기억 및 정황을 시각적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

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지속적인 프로젝트 및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방법 및 고민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가?

단체가 기획한 문화예술사업 활동을 통해 헌인마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채널을 구축했다.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2019년에도 헌인마을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며 다양한 창작자 ·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구·창작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해당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한 영향력

이슈 키워드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기여도 :

기존에 선택하였던 사회 이슈 키워드 및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문제에 대해서 단체가 목표한 결과 및 성과가 효과적이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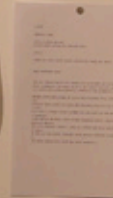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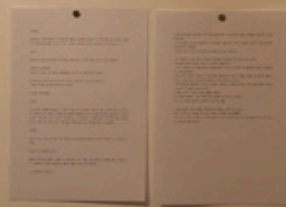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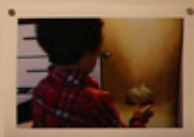
해당 이슈에 대한 고민의 깊이 :

사회적 이슈와 키워드에 대해서 단체만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였던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헌인마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직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목받지 않던 지역이다. 본 사업의 1차 목표는 보이지 않던 지역을 예술 문화적 관점에서 탐색하고, 지역 공간과 상황에 대한 인식 및 개념을 대외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생 가구 유통, 영상 제작 및 상영, 출판물 발행, 지도 제작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해 헌인마을의 장소성을 공유하고 지역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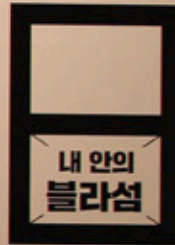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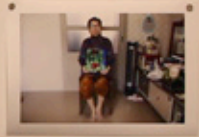
40

로로 브레인



로로브레인에게
소셜프로젝트는 폭염이다.

(웃음)
폭염 때문에 아주 뜨겁게
불태웠어요.



1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독거사 역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위기에 처한 1인 가구 지원 대책은 아직 한 끼 식사 제공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과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며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 이번엔 진행하신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본 프로젝트의 대상인 1인 가구를 방문해 그림을 그려드리며 그분들의 추억과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이미지화하는 작업은 한 사람의 긴 인생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위로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과 실제 사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한 프레임에 담긴 이미지를 갤러리에 전시하여 더 많은 사람이 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산더미같이 쌓인 포도, 갓 삶은 땅콩, 손수 짠 알밤, 찰밥, 믹스커피, 눈물, 집 앞에서의 기다림, 노래... 기획자, 작가, 참여자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공유한 것들입니다. 그림을 그리고자 가구를 방문한 작가들은 참여자들의 이야기와 정이 넘치는 음식을 비롯한 여러 추억을 나눴습니다.

4 2019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내안의 불라섬〉 시즌 2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보다 밀도 있게 듣고 풀어내고 싶습니다. 무거운 주제와 현실을 좀 더 유쾌하게 풀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단체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내 안의 불라섬〉의 사업리뷰

성과적 측면 / 사업 실현 성과

계획대비 프로젝트 실현 정도 :

초기 계획 및 예산 대비 프로젝트의 내용과 질적인 수준이 모두 적절하게 구현이 되었는가?





Text block 1: A single sheet of paper with printed text, likely a description or caption for the adjacent photograph.



Text block 2: A single sheet of paper with printed text, likely a description or caption for the adjacent photograph.



Text block 3: A single sheet of paper with printed text, likely a description or caption for the adjacent photograph.



Text block 4: A single sheet of paper with printed text, likely a description or caption for the adjacent photograph.



Text block 5: A single sheet of paper with printed text, likely a description or caption for the adjacent photograph.



Text block 6: A single sheet of paper with printed text, likely a description or caption for the adjacent photograph.



Text block 7: A single sheet of paper with printed text, likely a description or caption for the adjacent photograph.



Text block 8: A single sheet of paper with printed text, likely a description or caption for the adjacent photograph.



Text block 9: A single sheet of paper with printed text, likely a description or caption for the adjacent photograph.

기획했던 프로젝트 및 세부 프로그램들을 모두 계획대로 운영하였는가?

기획했던 프로그램을 큰 변동 없이 진행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은 많은 사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주어진 시간과 예산에 비해 많은 가구 수를 계획했으나 계획한 20가구 모두 진행한 결과 다양한 사례를 남길 수 있었다.

사업 지역 내 문화예술적 변화의 정도 :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및 커뮤니티 속 문화예술적 공감대가 확장되고 변화하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인가?

프로젝트 대상 가구 어르신들의 입소문이 퍼져 지역 센터와 모임에서 벽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홍보 성과

사업기획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효과성 :

사업 기획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웠는가? 그 홍보 방식이 외부 단체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나?

지역 내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노력도 :

지역 내 단체 및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는 어느 정도 노력하였는가?
그 홍보의 방식은 효과가 있었는가? (기사, SNS, 오프라인 홍보물 등)

전문 갤러리 전시를 통한 홍보를 진행했다.

파급효과적 측면 - 단체의 성장

단체의 역량 강화의 정도 :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지역 및 커뮤니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가?
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었는가?

2018 서울시 독거사 예방 시범 사업 지구였던 북아현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주민센터, 요양보호센터 등 지역의 협조와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

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지속적인 프로젝트 및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방법 및 고민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가?

본 프로젝트 첫해의 목표가 다양한 사례를 얻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가구수를 대폭 줄여 소수 어르신들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고 밀도 있게 듣고, 작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당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한 영향력

이슈 키워드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기여도 :

기존에 선택하였던 사회 이슈 키워드 및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문제에 대해서 단체가 목표한 결과 및 성과가 효과적이었는가?

해당 이슈에 대한 고민의 깊이 :

사회적 이슈와 키워드에 대해서 단체만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였던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사회적 이슈의 무게에 비하면 이 프로젝트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1인 가구 관련 이슈를 ‘독거사’라는 키워드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프로젝트 참여자를 부정적인 의미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리마크 프레스

remark
press





리마크프레스는 일상의 즐거움을 기획합니다.

리마크프레스에게
소셜프로젝트는 사람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저희가 생각하는 소셜은
사람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일이고 이런 따뜻함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가 일상의
즐거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설립연도 2015년
법적형태 법인사업자
단체규모 6명
활동분야 #커뮤니티기획 #공간기획 #장소 #관계 #일상
홈페이지 www.remarkpress.kr
www.dd238.kr



1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DD238은 2017년 2월, 획일화된 공간에서 획일화된 일상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55
다른 경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고자 이문초등학교 바로
옆에 문을 연 '아이들의 작업실'이자 '커뮤니티 카페'입니다. 2018년 10월
기준 1,200여 명의 회원들이 있으며 하루 평균 40여 명의 아이들이 작업실을
사용합니다. 그동안 작업실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실험과 변화의 과정에
주목해왔으나, 언젠가 이 공간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아이들 스스로 이
공간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열정에 힘입어
작업실에서 만들어 온 소소한 작품들을 가족과 동네에 소개하고, 우리 동네
작업실로 확대되는 커뮤니티 센터의 가능성을 열어 보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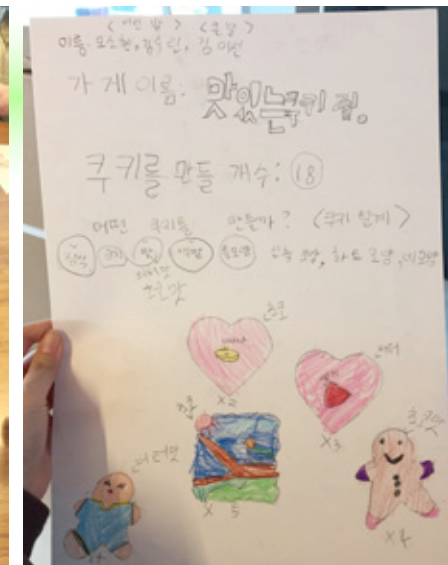
2 이번에 진행하신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2018년 7월 21일, <제1회 DD238 리틀 메이커스 마켓>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한 마켓에서 6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상품을 제작하거나,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판매하여 수익을 만드는 장을 열었습니다. 10월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쿠키를 포장, 판매하면서 작업실의 주인공이 되는 <제2회 DD238 리틀 55
메이커스 마켓-쿠키 마켓>을 열었습니다.

10월부터 한달 간 <제2회 DD238 아카이브 전시>을 열어 2년 동안
많은 사람과 함께 실험한 DD238의 가치와 의미를 사전으로 만들고 다음 단계에
필요한 과제를 살피는 <디디 덕서너리>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만든 11,000여 장의 작업노트를 바탕으로 매일 질문하고 실천할
수 있는 365가지 프로그램을 정리한 <디디 매일력> 전시를 기획하여 다양한
외부 방문자들이 DD238의 스토리와 가능성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3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두 번째 리틀메이커스 마켓에서 아이들이 손수 만든 쿠키가 예정 시간보다 일찍
매진된 순간입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쿠키와 직접 만든 쿠키를 어떻게 팔 것인지
고민하며 세심하게 만든 홍보 문구를 보면서 아이들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것을 판매하고 교환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의미 있는 리틀 메이커로서 조금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46	60	47	48	50
49	52	53	54	57
61	55	59	56	58
62	66	68	64	65
63	67	70	73	74
81	75	69	72	85
77	78	86	79	82
87	80	83	84	89

틈틈히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2	105	101	110	117
103	119	118	116	114
104	121	125	109	112
113	130	129	131	135
115	136	133	140	111
107	144	141	138	139

꾸준히

152	150	151	154	155
126	167	164	174	176
143	165	157	124	172
142	134	162	108	190
153	161	184	181	194
156	163	207	201	202
159	188	203	206	205
160	191	199	212	215



〈리틀 메이커스 마켓〉과 〈리틀 메이커스 캠프〉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만들고 만든 것을 어떻게 공유할지 고민하고, 스스로 만든 것을 교환하며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일상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메이커 문화는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캠프를 통해 만드는 즐거움을 공유하고, 마켓을 통해 교류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며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함께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특별한 존재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싶습니다.

단체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DD238 Little Maker Fair〉의 사업리뷰

성과적 측면 / 사업 실현 성과

계획대비 프로젝트 실현 정도 :

초기 계획 및 예산 대비 프로젝트의 내용과 질적인 수준이 모두 적절하게 구현이 되었는가?

기획했던 프로젝트 및 세부 프로그램들을 모두 계획대로 운영하였는가?

사업 지역 내 문화예술적 변화의 정도 :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및 커뮤니티 속 문화예술적 공감대가 확장되고 변화하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인가?

아이들에서 가족까지 문화예술적 공감대가 확장되는 것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변화하는 움직임을 지표화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홍보 성과

사업기획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효과성 :

사업 기획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웠는가? 그 홍보 방식이 외부 단체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나?

회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 타깃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진행했다.

지역 내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노력도 :

지역 내 단체 및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는 어느 정도 노력하였는가? 그 홍보의 방식은 효과가 있었는가? (기사, SNS, 오프라인 홍보물 등)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타깃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은 효과적이었으나, 지역 내 인지도 향상에 있어서 SNS가 효과적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파급효과적 측면 - 단체의 성장

단체의 역량 강화의 정도 :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지역 및 커뮤니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가?
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었는가?

이번 사업을 통하여, 아이들의 작업실이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두 번의 마켓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고, 만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의 것을 알리고, 새로운 가치(화폐)로 교환하는 과정을 주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

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지속적인 프로젝트 및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방법 및 고민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가?

본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의 경험이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의

경험으로 확대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아이들의 작업실이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확장, 정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앞으로 리틀 메이커스 마켓을 정기적으로 열고, 보다 전문화 되고 고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내년 봄에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해당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한 영향력

이슈 키워드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기여도 :

기존에 선택하였던 사회 이슈 키워드 및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문제에 대해서 단체가 목표한 결과 및 성과가 효과적이었는가?

“아이들은 학교가 끝난 뒤,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학원 시스템에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재확인했으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이들의 주체적 성장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해당 이슈에 대한 고민의 깊이 :

사회적 이슈와 키워드에 대해서 단체만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였던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얻는 특별한 커리큘럼을 구상하고 있다. 2년 동안 만든 성과와 데이터로 더 깊이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

무궁무진 스튜디오





우리들의 이야기로 만드는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 창작소, 무궁무진스튜디오.

무궁무진 스튜디오에게
소셜프로젝트는 상견례다.

67

무궁무진웨딩송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은 예비 신랑 신부와
뮤지션을 상견례 형식으로
만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언가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소셜프로젝트도 저희에게
이러한 연결의 작용을 했습니다.

67

설립연도 2018년
법적형태 법인사업자
단체규모 3명
활동분야 #음악창작워크숍 #청소년창의교육 #콘텐츠창작서비스 #웨딩송창작 #예술가일거리창출
홈페이지 www.moomoost.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weddingsongwriter4u
인스타그램 @weddingsongwriter4u



지인들의 결혼식에서 축하 요청을 받을 때마다, 창작 웨딩송을 선물하는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웨딩송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친구들을 보며 이 작업을 동료 뮤지션들과 함께 해보고 싶었습니다. 웨딩송을 만들어 공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원으로 제작하고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유통하는 실험까지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주로 자신의 이야기로 곡을 창작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이 타인의 이야기로 곡을 창작해본다면, 그들에게도 색다른 실험이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곡의 주제와 핵심 스토리를 잡는 것에 뮤지션 외부의 요인이 영향을 주는 방식은 기존 독립 음악이 놓치고 있는 대중성과 상품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무궁무진 웨딩송라이터는 뮤지션에게는 창작의 영감을, 신랑 신부에게는 평생 간직할 단 하나의 웨딩송을 선물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첫 만남부터 결혼을 약속하기까지, 각양각색의 사연을 가진 커플의 연애사를 모집했고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하고자 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이 직접 작업하고 싶은 사연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뮤지션&신랑 신부 상견례'를 통해 글에 담기지 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연을 응모한 커플은 자신들의 웨딩송을 상상하며 최대한 조리 있게 연애사를 이야기했고, 뮤지션은 어떻게 가사를 풀어갈지, 두 사람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선율을 상상하며 경청했습니다.

그렇게 5곡의 웨딩송을 만들어 사연을 제공한 커플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축하를 선물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음원으로 발매하여 신랑 신부와 뮤지션 모두 영원히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실력과 싱어송라이터들과 특별한 결혼식을 꿈꾸는 커플들이 함께 만든 5곡의 웨딩송은 <무궁무진 웨딩송라이터 vol.1 ~ vol.5>라는 개별 디지털 싱글로 발매되었습니다. '웨딩송라이터'라는 가상의 그룹명 아래 참여 뮤지션들이 각 곡의 아티스트로 참여한 이 앨범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유니버스 디지털 싱글 앨범입니다. 공세영의 '내가 어떻게', 전기장판의 '복두칠성 그리고', 비온후렴의 'Love You', 귀울임의 '너로 물들다', 김은태의 'With' 총 5곡의 웨딩송 안에 녹아든 다섯 커플의 사랑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가장 특별한 단

하나의 웨딩송이면서, 또 다른 이에게는 결혼을 앞두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대중음악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3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뮤지션과 신랑 신부가 만난 상견례 워크숍의 어색한 공기, 뮤지션들의 데모곡을 처음 들었던 순간, 레코딩스튜디오에서 치열하게 피드백 나누는 뮤지션을 바라보던 순간, 웨딩송이 처음 결혼식장의 축가로 울려 퍼지던 순간, 콘서트에서 마지막 곡이 끝난던 순간, 첫 번째 온라인 음원이 발매되던 순간. 정말 많은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했던 순간은, 사연을 응모하신 커플이 결혼을 준비하다 지쳐 서로 다투었을 때 뮤지션이 보내준 데모곡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신 순간이었습니다. 노랫말에서 자신들의 추억을 발견하고 그 시절의 따뜻한 감정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음악으로 눈물짓게 만드는 건 뮤지션에게도 엄청난 경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온 작업이 가장 빛난 순간입니다. 콘서트 뒤풀이 때, 특별한 주제를 준비한 것도 아닌데 막차가 끊길 때까지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친구가 되어, 한 커플이 집들이에 뮤지션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4 2019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스토리를 가진 개인과 창작 능력을 갖춘 예술가를 연결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무궁무진스튜디오의 방향성입니다. 2017년에는 청소년의 표현 욕구와 뮤지션의 창작 능력을 연결하여 <사춘기뮤직스튜디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했고 이를 통해 700여 명의 청소년을 만나 그 시절의 감성을 담은 사춘기뮤직 70여 곡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웨딩송라이터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색다른 독립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직접 음원을 제작, 유통하며 제작사로서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9년에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웨딩송에 국한하지 않고, 소중한 순간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의 사연과 뮤지션을 연결해서 음악을 창작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프로포즈송,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는 진혼곡... 주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만든 곡이 100곡 정도 쌓이면 <사춘기뮤직>

전시회도 개최하고 싶습니다. 1~3년 전 자신들의 목소리가 담긴 음악을 듣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사춘기뮤직 중 우수 콘텐츠는 이번 웨딩송처럼 직접 제작, 유통해보고 싶습니다. 10대들이 만든 10대의 음악을 직접 유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새롭게 실험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체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무궁무진 웨딩송라이터>의 사업리뷰

성과적 측면 / 사업 실현 성과

계획대비 프로젝트 실현 정도 :

초기 계획 및 예산 대비 프로젝트의 내용과 질적인 수준이 모두 적절하게 구현이 되었는가?

기획했던 프로젝트 및 세부 프로그램들을 모두 계획대로 운영하였는가?

초기에 계획한 내용(OT, 뮤지션&신랑 신부 상견례, 레코딩, 웨딩송라이터 영상, 최종 콘텐츠 완성, 축하 공연, 콘서트 등)을 모두 진행했고, 음원 및 공연 제작에 추가 비용이 필요하여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자란 비용을 충당했다.

사업 지역 내 문화예술적 변화의 정도 :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및 커뮤니티 속 문화예술적 공감대가 확장되고 변화하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인가?

본 프로젝트의 구성원들이 속해 있던 문화예술인 및 뮤지션 네트워크를 통해 웨딩송을 제작할 뮤지션, 음원 마스터링을 진행할 엔지니어, 레코딩 스튜디오를 섭외했고 SNS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사연을 제공할 커플을 모집했다. 참여자와 홍보를 진행한 문화예술네트워크의 반응은 기대보다 좋았고 참여를 원하는 문의가 많았으며, 실제 논의하고 있는 잠재 고객(예비 부부)과 신규 뮤지션들이 있다. 또한, 주로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는 곡을 써온 인디 뮤지션이

타인의 이야기로 창작을 시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한 곡’이 단순한 의뢰에 그치지 않고, ‘예술가가 타인의 스토리에 영감 받아 창작으로 풀어낸다’는 단체 의도에 공감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홍보 성과

사업기획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효과성 :

사업 기획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웠는가? 그 홍보 방식이 외부 단체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나?

‘결혼 문화’와 ‘다른 사람을 위한 곡’을 작업한다는 기획 의도에 공감하는 뮤지션을 찾기 위해 심도 있는 섭외의 과정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속한 네트워크를 통해 뮤지션을 찾고, 향후 웨딩송 연계 공연을 위해 ‘크루’와 같이 유대감 있는 관계를 형성했다. 또한, SNS에 광고를 게재해 예비 신랑 신부를 모집하고, 각 뮤지션이 직접 5쌍의 커플을 선발했다.

지역 내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노력도 :

지역 내 단체 및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는 어느 정도 노력하였는가?

그 홍보의 방식은 효과가 있었는가? (기사, SNS, 오프라인 홍보물 등)

지속적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를 냈다. 미디어펜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웨딩송라이터의 첫 음원이 유통되는 날 기사가 나왔다. 해당 기사를 통해 TBN 라디오 프로그램의 〈일요 초대석〉 명사로 초청되어 서울문화재단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원사업과 〈무궁무진 웨딩송라이터〉 프로젝트를 홍보했다. (11/04, 11:00-11:55 TBN 표영호의 교통시대)

무궁무진 웨딩송라이터를 통해 제작한 음원은 뮤지션과 신랑 신부의 의사에 따라 실제 결혼식 축하 공연으로도 이어졌으며, 이를 본 하객이 참여를 문의하기도 했다. 앞으로 웨딩송 제작 의뢰인들의

결혼식에서 웨딩송라이터 프로젝트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파급효과적 측면 - 단체의 성장

단체의 역량 강화의 정도 :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지역 및 커뮤니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가?

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었는가?

본 프로젝트를 통해 단체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에 적합한 아티스트를 섭외하고 음원을 제작, 유통하는 경험을 얻었다. 특히 아티스트 섭외 단계에서는 뮤지션별 활동 현황(소속사 소속 여부, 디스코그래피 현황 등)에 따라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한 아티스트를 추려낼 수 있었다. 또한,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료의 분배 및 유통, 음원 발매 마케팅 플랜 등 온라인 유통 기획 과정을 학습하며 향후 〈무궁무진 웨딩송라이터 시즌 2〉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향성을 도출했다.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

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지속적인 프로젝트 및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방법 및 고민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가?

재단 지원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공연, 추가 연계 공연을 통해 뮤지션 1팀당 약 160만 원의 창작 활동비를 받았으며, 1건당 평균 30만 원의 추가 공연 수익을 확보했다. 향후 음원 유통 생략, 제작 및 홍보 비용을 최소화하고 소규모로 진행할 경우 1건당 50~70만 원의 비용으로 지속적인 뮤지션 활동 및 지원이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향후 ‘스토리’ 연계를 주요 컨셉으로 한 음악창작 서비스의 주제를 다양화 한다면 더 넓은 타깃을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슈 키워드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기여도 :

기존에 선택하였던 사회 이슈 키워드 및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문제에 대해서 단체가 목표한 결과 및 성과가 효과적이었는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뮤지션은 대부분 소속사가 없는 신인 싱어송라이터, 어쿠스틱 밴드였다. 웨딩송 제작 및 추가 공연은 풀 밴드보다 1~2인 어쿠스틱 밴드가 적합하다고 보며 아직 음원 발매 이력이 없는 신인 뮤지션의 창작 지원에 적합한 프로젝트였다.

이번 시즌의 경우 본 프로젝트를 통해 첫 싱글 앨범을 발매한 뮤지션도 있었다.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가 아닌 타인의 이야기를 소재로 곡을 창작함에 있어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지금은 결과에 만족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평가한 뮤지션도 있었다. 콘텐츠 창작 관점 및 방식의 변화로 뮤지션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고객(참여자) 관점의 창작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의도는 충분히 성공적이었다.

특히 프로젝트에 참여한 예비 신랑 신부의 만족도가 높았다. 결혼 전의 이야기를 음악 작품으로 간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했으며, 돈을 지불하고 의뢰하는 대신 사연을 응모하고, 뮤지션과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느슨하지만 의미 있는 유대관계가 형성되었다. 모든 참여 커플이 추가 섭외비를(35만 원 선) 지불하면서도 뮤지션이 결혼식에서 추가를 불러주기를 요청했다.

해당 이슈에 대한 고민의 깊이 :

사회적 이슈와 키워드에 대해서 단체만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였던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참여한 예비 신랑, 신부들이 생각하는 추가 섭외비의 적정 수준은 케이스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식에 추가 축하팀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결혼식 예산 범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음원의 유통 과정을 생략한다면 뮤지션의 경우 음원이 디스코그래피에 등록되는 부담감을 덜고, 신랑 신부에게는 더 커스터마이징한 창작 웨딩송 제작이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이번처럼 뮤지션의 싱글 앨범으로 음원 유통까지 진행하는 것은 향후 고급화 트랙으로 분화하여 제작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선잠52





지역 문화, 문화 공간, 사회적 예술에 대한 기획, 연구, 교육, 프로그래밍, 네트워킹을 실행하는 단체입니다.
건축, 문화 연구, 예술 기획, 커뮤니티 빌딩의 융복합 작업을 모색합니다.

선잠52에게 소셜프로젝트는 질문이다.

작업을 진 행 하 다 보 니 예 술 과
사 회 에 대 해 서 끝 이 없 이
질 문 하 게 되 더 라 고 요. 정 답 이
있 는 것 은 아 니 라 서, 질 문 을
통 해 서 계 속 성 찰 하 고
나 아 가 게 되 는 것 같 아 요.
프 로젝 트 를 진 행 하 는 내 내
끝 이 없 이 질 문 하 고 노 력 하 는
과 정 이 었 어 요.

설립연도 2017년
법적형태 고유번호증
단체규모 30명
활동분야 #사회적예술 #커뮤니티아트 #노인문화 #지역문화 #예술공간
페이스북 [www.facebook.com/groups/
454343314921536/?ref=br_rs](https://www.facebook.com/groups/454343314921536/?ref=br_rs)
프로젝트 www.facebook.com/memory.talk.house
페이스북 그룹 <선잠52_우주, 동네 그리고 예술을 상상하는 공간>으로 검색 가능

1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마을 예술가 단체로서, 노인들이 가진 삶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나눌 방법을 고민하다 작년부터 지역 노인, 예술가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예술은 예술의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사회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회적 예술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2 이번에 진행하신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할머니들의 움직이는 방〉은 청년 예술가들이 노인들의 삶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새로운 창작으로 이어가는 사회적 예술 프로젝트입니다. 노인들의 일상과 기억, 경험을 재구성하여 그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3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참여한 노인 분들이 프로젝트 종료 이후 후속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계획을 궁금해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한 때입니다.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행복했다고, 계속 작업을 이어가달라는 말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껏 예전 기억을 잊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어서 행복해요.” - 오금리(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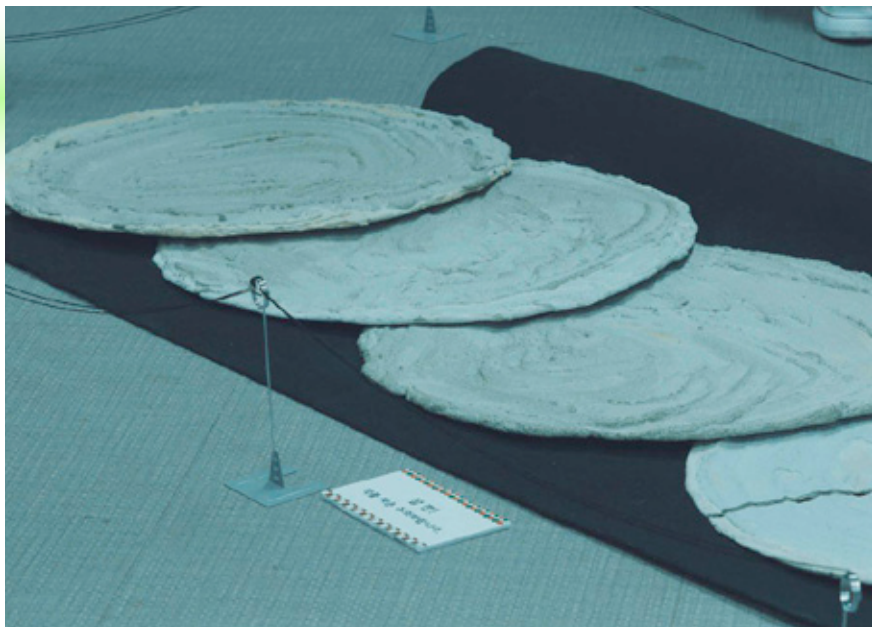
“이후에도 지금처럼 계속 나이 든 우리들의 이야기를 잘 기록해 주세요.” - 김용수(70)

“젊은 작가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 연구하고 활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일상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주변 노인들이 많은데, 이거 같이 하자고 권하고 싶어요.” - 이영구(81)

4 2019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할머니들의 움직이는 방〉과 같은 〈이야기청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노인 단체, 공간, 관계자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려 합니다. 성북 외 다른 지역에서의 활동도 논의 중이고, 꾸준히 이어온 예술 비평, 토론, 예술·마을 워크숍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과적 측면 / 사업 실현 성과

계획대비 프로젝트 실현 정도 :

초기 계획 및 예산 대비 프로젝트의 내용과 질적인 수준이 모두 적절하게 구현이 되었는가?

기획했던 프로젝트 및 세부 프로그램들을 모두 계획대로 운영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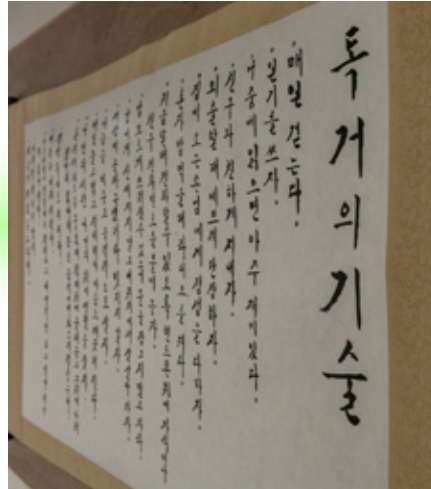
이야기청 활동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어진 팀이 아니라 기존부터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다. 그래서 프로젝트 구조나 예산에 맞추기보다는 기존 활동 흐름에 맞추어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그러다 보니 예산에 비해 많은 수의 예술가, 기획자 등이 참여했다. 따라서 프로젝트 내용과 질적인 수준은 만족스러웠지만 프로젝트 구조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힘들었다.

기획했던 프로젝트 및 세부 프로그램들은 모두 운영하였고, 진행 과정에서 기획자와 예술가들의 새로운 제안에 의해 더 다양하고 확장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사업 지역 내 문화예술적 변화의 정도 :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및 커뮤니티 속 문화예술적 공감대가 확장되고 변화하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인가?

지난 2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 이야기청 작업은 성북 지역 내에서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있다. 지역 내 문화 예술 생태계, 예술가 커뮤니티, 공공기관 등에서 많은 관심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 내 도서관, 생활 문화 센터, 노인시설 등 협력 공간들과 이야기청 활동의 메시지가 넓게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새로운 변화와 협력의 제안들이 진행되고 있다.



홍보 성과

사업기획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효과성 :

사업 기획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웠는가? 그 홍보 방식이 외부 단체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나?

지역 내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노력도 :

지역 내 단체 및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는 어느 정도 노력하였는가?

그 홍보의 방식은 효과가 있었는가? (기사, SNS, 오프라인 홍보물 등)

노인 단체에 직접 방문, 사업설명 및 홍보를 진행하며 참여 대상을 모집했다. 사업 관련 협의 및 홍보를 통해 노인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나, 노인층에 맞는 홍보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느꼈다.

파급효과적 측면 - 단체의 성장

단체의 역량 강화의 정도 :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지역 및 커뮤니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가?

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었는가?

2년 동안 성북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 예술가와 기획자, 연구자, 노인 단체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예술 활동을 함께하며 지역 커뮤니티가 더욱 확대되었다. 올해는 공공도서관, 공공생활예술문화센터 등 협력 공간과의 연계 작업을 통해 노인들과 일상적으로 만나는 장소에서 지역 노인 커뮤니티를 형성했고, 노인을 주체로 한 워크숍을 공동 기획 하는 등 '공통감'을 형성하며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이어갈 예정이다.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

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지속적인 프로젝트 및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이와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단체 구성원 모두 노인과 사회적 예술의 관계에 대한 고민과 경험이 깊어졌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다. 노인과 함께하는 사회적 예술에 관심을 가진 예술가들의 참여와 교류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워크숍 등도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 민간 재단, 예술가 커뮤니티 등과의 파트너십을 다각화하고 있다.

해당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한 영향력

이슈 키워드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기여도 :

기존에 선택하였던 사회 이슈 키워드 및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문제에 대해서 단체가 목표한 결과 및 성과가 효과적이었는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노인 문화, 세대간 소통에 대한 지역 내 관심이 한층 더 깊어졌고, 특히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참가자, 협력 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프로젝트에 보이는 반응 및 관심을 고려했을 때 지역에서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시대와 사회 패러다임의 중대한 변화를 문화적, 감각적으로 준비하는 소중한 경험(활동)이 될 것이다.

해당 이슈에 대한 고민의 깊이 :

사회적 이슈와 키워드에 대해서 단체만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였던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고령화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 다양한 예술의 관점에서 노인의 삶에 접근하고자 했다. 고령화 시대는 단순히 노인들의 문제, 노인 수의 증가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고령화 시대는 사회 구조 전체의 변화이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설정 자체가 달라지는 중요한 사회 변동이다. 이야기청 활동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87 노인의 이야기와 삶을 출발점으로 하되 사회의 변화, 세대적 소통과 협력을 고민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작업자, 연구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철학과 언어를 발굴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 심리학자, 구술 연구자, 노인 관련 예술 작업자 등과의 협력 워크숍, 사례 공유회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셜 씨어터

social theater





소셜씨어터에게
소셜프로젝트는 소통이다.

소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문제를 예술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셜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러한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이곳에서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성남향 소통 극장 소셜씨어터

설립연도 2015년
법적형태 개인사업자
단체규모 8명
활동분야 #공연 #영상 #전시 #축제 #다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ocialtheater.net>
인스타그램 @socialtheater_ / @kokduya (프로그램 계정)





風花梅玉送時香

月沈池水成雲日

桃花風軟小溪幽



1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소셜씨어터는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고 무너뜨리며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장례문화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소재 ‘꼭두’를 연구하던 중, 친한 친구를 잃고 슬퍼하는 팀원이 있었습니다. 팀원이 친구를 보내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이별을 견디기 위해서는 개인이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과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장례에서 놓치고 있는 이 지점을 여러 사회적 죽음과 연결해 보는 건 어떨까? 이번 <#꼭두되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질문입니다.

2 이번에 진행하신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서울에서 ‘안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빠르게 변화하는 서울에서는 사회적 죽음을 치유하고 위로할 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 <#꼭두되기>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를 기억하고 위로하며 슬픔과 작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다시 ‘안녕’ 하고 인사하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사회적 죽음’ 주제 전문가 및 참여 시민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에 전시했습니다. 더불어 5일 동안 지화 만들기, 기원지 쓰기 등의 관련 워크숍을 진행하고 추석날 한옥마을 광장에서 현장 참여형 퍼레이드를 열었습니다.

3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젊은 시절 상여꾼을 하셨다고 땅 다지기와 상여 노래를 직접 보여주신 할아버지,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마무리하던 중에 전시를 보러 오신 할머니, 어린 시절 봤던 상여 행렬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들려주며 즐거워하는 어르신들, 가족이 함께 와서 꽃을 만들며 나누는 이야기, 워크숍 진행 도우미를 자원한 캐나다·이탈리아 친구들을 만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교육 및 예술 관계자분들의 진심 어린 칭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모든 순간을 잊지 않고 소중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4 2019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상여 퍼레이드, 시민 릴레이 인터뷰 등 예술적으로 더욱

깊이 있는 전시를 기획하고, 기존에 전시한 영상을 보완하여 독립영화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대중적 현장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느낀 부족한 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장기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단체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꼭두되기 (서울을 위한 안녕의 시간)>의 사업리뷰

성과적 측면 / 사업 실현 성과

계획대비 프로젝트 실현 정도 :

초기 계획 및 예산 대비 프로젝트의 내용과 질적인 수준이 모두 적절하게 구현이 되었는가?

기획했던 프로젝트 및 세부 프로그램들을 모두 계획대로 운영하였는가?

사업 지역 내 문화예술적 변화의 정도 :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및 커뮤니티 속 문화예술적 공감대가 확장되고 변화하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인가?

사업 초기 계획한 개별 콘텐츠 준비 및 제작 실현까지 목표 이상의 결과물을 도출했다. 남산골 한옥마을의 기존 전통 프로그램에 없었던 장례 문화 소재 콘텐츠를 개발하여 남녀노소 다양한 관객들의 관심을 모았고, 가족 단위 워크숍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냈다.

홍보 성과

사업기획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효과성 :

사업 기획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웠는가? 그 홍보 방식이 외부 단체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나?

홍보 전략은 있었으나 예산의 문제로 실현하지는 못했으며, 온라인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도록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신경 썼다.

지역 내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노력도 :

지역 내 단체 및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는 어느 정도 노력하였는가?

그 홍보의 방식은 효과가 있었는가? (기사, SNS, 오프라인 홍보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추석날 공공장소에서 퍼레이드를 열어 많은
관객을 확보했다.

파급효과적 측면 - 단체의 성장

단체의 역량 강화의 정도 :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지역 및 커뮤니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가?

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었는가?

본 프로젝트를 통해 공연 및 축제, 워크숍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을
쌓고 조직의 역량을 키웠다. 앞으로 진행할 꼭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으며 프로젝트에 동참할 전문가 및
일반 시민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

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지속적인 프로젝트 및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방법 및 고민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가?

한옥마을이라는 장소의 특성을 살린 대중 프로그램 개발 의지가
생겼으며, 공동 기획 및 콜라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이끌어냈다.

사회적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영상·공연 작업으로 풀어 나갈
발판을 마련했다.

이슈 키워드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기여도 :

기존에 선택하였던 사회 이슈 키워드 및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문제에 대해서 단체가 목표한 결과 및
성도가 효과적이었는가?

해당 이슈에 대한 고민의 깊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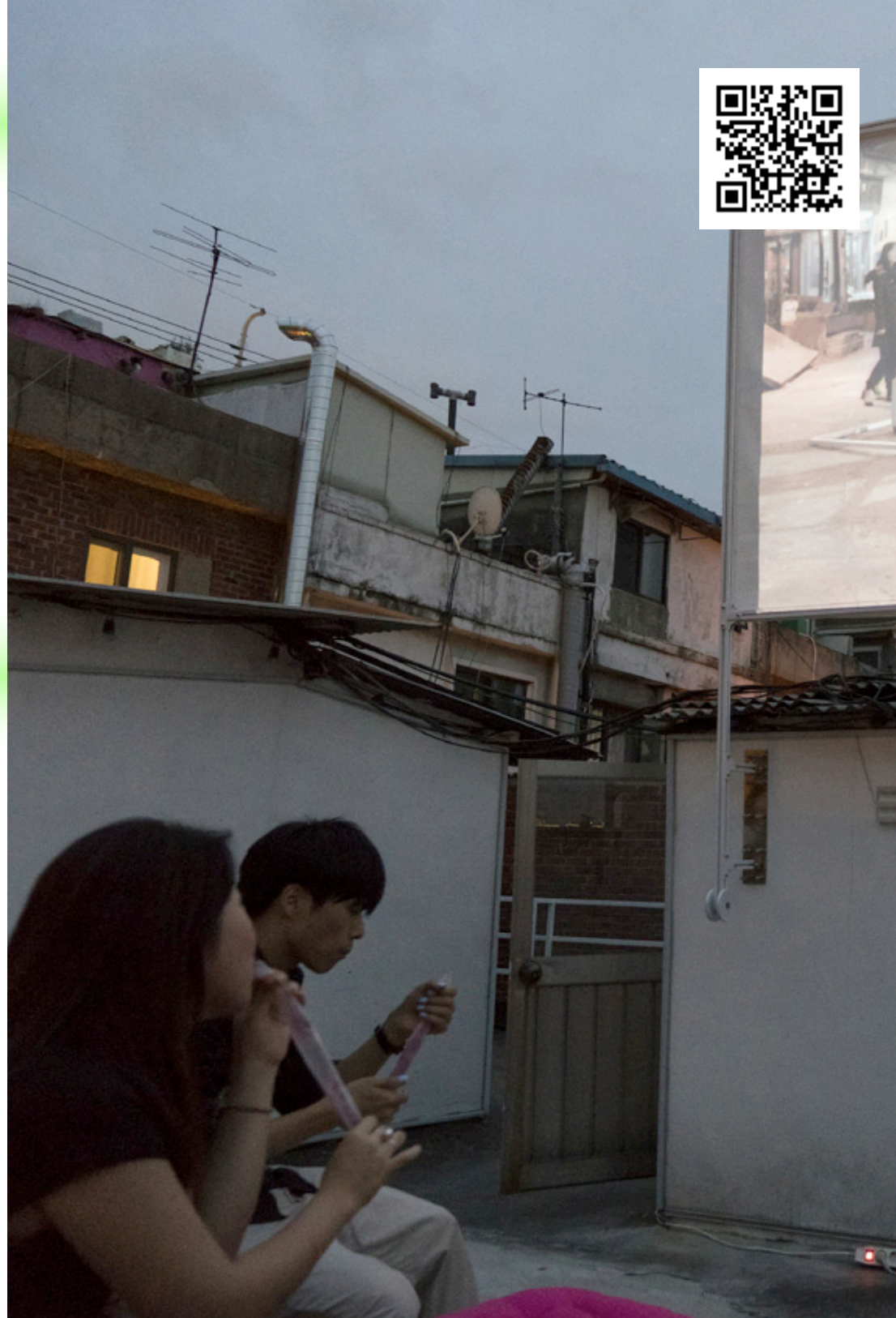
사회적 이슈와 키워드에 대해서 단체만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였던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전문가 및 참여 시민 인터뷰 영상 제작을 통해 사회적 죽음이라는
이슈를 공감할 수 있는 코드로 만들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상여
퍼레이드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아름다운 전통 장례 문화에서
가져온 꽃상여, 지화 만들기 워크숍을 통해 참여의 의미를 되새겼다.

현장 관객의 많은 참여로 사업의 필요성과 진정성을 확인했고,
시민 관객 간의 교류를 통해 긍정적인 소통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스페이스 원

art space one





스페이스원은 작가들이 운영하는 공간으로 국내외 작가들의 실험적인 현대 미술을 선보인다.
또한 국내외의 작가 및 다른 전시 공간과의 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다양성 및 독립성을 지향한다.

스페이스원에게
소셜프로젝트는 희망이다.

105

소셜프로젝트는 사회 문제와
주민, 공동체, 공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공
설치물이나 조각을 만드는
것을 넘어 주민들과 담론하며
더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소셜프로젝트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105

설립연도 2014년
법적형태 고유번호증
단체규모 4명
활동분야 #도시 #젠더 #현대미술 #AI #실험 #교류
홈페이지 www.artspaceone.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artspaceone
인스타그램 @artspaceone



1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2017년, 동시대 공동체를 예술적 관점에서 연구하면서 해방촌 지역 주민들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해방촌에 흩어진 마이크로 커뮤니티(미시 공동체, Micro-Community)의 구조와 교차점을 확인했고, 이를 계기로 동시대에 ‘공공장소’(공유 공간)란 어떤 의미일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최근 공간의 상업화·사유화가 심해지면서 지역 공동체들이 모일 공간이 사라지는 도시화 현상을 고찰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올해 4월, 베트남과 홍콩에서 활동하는 건축가·예술가들과 해방촌을 방문하여 하늘(옥상 공간의 확장), 이동형 공간, 신흥시장 광장이라는 세 곳의 ‘공공장소’를 찾았습니다. 이 세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다양한 영상 설치, 퍼포먼스, 담론, 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인터랙티브한 융화와 개입을 이끌었습니다.

2 이번에 진행하신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공유 공간과 시간의 교차로〉는 동시대 도시화 과정에 있는 아시아 대도시 내 공공장소의 위치와 양태를 살피고, 그 의미를 되짚는 협업 프로젝트입니다. 도시 인구 밀도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 공간과 시간의 사유화는 점차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공유 공간과 시간은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장소를 ‘공존하는 공간’과 ‘공유하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아시아에서 공공장소의 개념이 ‘재생’, ‘젠트리피케이션’, 일시적인 미시 공동체(Micro-Communities)의 영역과 공존하며 어떻게 유기적으로 발전해 왔는지 고찰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공유 공간’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협업을 통해서, 작게는 시간성과 이동성이 일치하는 틈새 공간에서부터 크게는 개방되어 있고 고정된 공간, 이어서 조작된 만남이 일어나는 온라인상 공간까지 공유 공간을 다시금 생각하고 구성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개인과 공공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면서 발생하는 우연, 조작, 이동성과 고정성을 반영하고 내재합니다.

〈공유 공간과 시간의 교차로〉는 해방촌에서 진행한 미시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그 담론을 시각 예술가, 건축가, 영화 제작자 및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강연 및 패널 토크 ‘공유 공간의 파편화: 예술과 건축의 개입 및

융화', 워크숍 '마이크로 커뮤니티를 통해 미래 공유 공간 상상하기', 공공장소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상영회 '불확정한 시네마 II', 옥상 스크린 설치 '시선의 안과 주변, 너머에서', 이동식 스크린 설치 퍼포먼스 '10초의 눈길'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확장하고자 합니다.

3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2017년과 달리 올해는 주민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문가와의 워크숍을 통해 건축가, 예술가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감동하기도 했고, 각자의 연구·접근 방식을 새롭게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트럭 위에 이동형 설치물을 만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팀이 함께 움직이며 머릿속의 상상이 하나씩 현실화되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결과물을 체험하며 공감하고, 서로 관계 맺고, 공공장소를 새롭게 경험하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가장 컸습니다.

4 2019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2019년에는 이동형·접이형 등 다양한 설치 구조를 개발하고, 나아가 가구와 음식의 재구성에 따른 동시대 마이크로 한국 문화의 변화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닥 문화, 반찬 문화, 식탁 문화 등을 조사하여 공간, 시간, 가구, 음식을 매개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동시대 공공 공간, 공동체에 관해 작업하고 싶습니다. 또한 블로그,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공유 공간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화하고 싶습니다. 공공 설치 작가이자 기획자로서 대안적 사회구조(수직적, 경쟁적 구조의 대안)를 계속 이야기하고,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직접 주민들과 담론하고 화합하면서 지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과적 측면 / 사업 실현 성과

계획대비 프로젝트 실현 정도 :

초기 계획 및 예산 대비 프로젝트의 내용과 질적인 수준이 모두 적절하게 구현이 되었는가?

기획했던 프로젝트 및 세부 프로그램들을 모두 계획대로 운영하였는가?

자본으로 움직이는 뻣뻣한 공간들 사이에 조금이라도 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공유 공간 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다양한 공간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개입하여 공유 공간에 관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업 지역 내 문화예술적 변화의 정도 :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및 커뮤니티 속 문화예술적 공감대가 확장되고 변화하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인가?

드러나지 않았던 작은 공간들을 공유 공간으로 활성화하여 다양한 예술을 매개로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 흠뻑했다. 일시적 동시대 공동체를 형성하려던 의도가 잘 반영된 결과다.

이동형 트럭 전시를 통해 예술과 시민 간에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공간에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새로운 순환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또한, 공유 공간의 미래를 상상하는 참여형 워크숍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생각을 수집, 공유했다.

홍보 성과

사업기획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효과성 :

사업 기획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웠는가? 그 홍보 방식이 외부 단체의 사업 또는

워크숍 사전 등록 참여를 이끌고, 전문적인 예술 홍보를 적극 지원하는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동형 설치물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나, 해방촌의 언덕길과 낮은 전기선 때문에 계획만큼 많이 이동하며 홍보하지는 못했다. 이 부분은 향후 인력 보충 등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지역 내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노력도 :

지역 내 단체 및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는 어느 정도 노력하였는가?

그 홍보의 방식은 효과가 있었는가? (기사, SNS, 오프라인 홍보물 등)

공공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주민들과 얹힌 이해관계로 인해 부정적인 반응을 얻기 쉬운데, 해방촌에서 오랫동안 작업한 경력이 있어 보다 수월하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파급효과적 측면 - 단체의 성장

단체의 역량 강화의 정도 :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지역 및 커뮤니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가?

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었는가?

본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쌓아온 관계의 힘을 재확인했다. 홍보 전문 인력이 없어 홍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해방촌문화비빔밥' 등과의 협력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다. 차후 다른 단체 및 모임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고자 한다.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

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지속적인 프로젝트 및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이와

다양한 주체 간의 담론과 교류, 호응이 좋았던 설치물과 활동의 확대,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아카이빙을 통해 주제를 확장하고자 한다.

해당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한 영향력

이슈 키워드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기여도 :

기존에 선택하였던 사회 이슈 키워드 및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문제에 대해서 단체가 목표한 결과 및 성과가 효과적이었는가?

단순히 공간을 매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소통하는 공유 공간을 만드는 일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주민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본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토론, 워크숍, 설치 등이 다양한 주민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이슈에 대한 고민의 깊이 :

사회적 이슈와 키워드에 대해서 단체만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였던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서울에서 사라지고 있는 공유 공간의 가치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 공간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흥미를 이끌어 소통의 장을 만드는 데 프로젝트의 의의를 두었다.

시각



시각에게

소셜프로젝트는 ... 이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를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묵음으로 대체했습니다.

시각은 예술교육복지 활동팀이다.

설립연도 2016년
법적형태 고유번호증
단체규모 7명
활동분야 #미술교육

1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촉각적, 청각적 요소와 협업한 미술 활동을 통해 시각 언어의 영역을 확장하고, 119 다양한 감각적 요소를 시각 작품으로 만드는 예술 교육을 제안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전시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가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2 이번에 진행하신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손으로 만드는 노래〉 프로젝트는, 시각 장애인이 만든 미술 작품을 전시 형태로 선보이는 예술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음악회와 워크숍, 전시로 구성되었습니다.

3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워크숍을 위해 제작한 뮤지컬 음악을 시각 장애인 아동들이 흥얼거리거나, 본인이 만든 작품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볼 때 이번 프로젝트의 긍정적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4 2019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119

현재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체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손으로 만드는 노래〉의 사업리뷰

성과적 측면 / 사업 실현 성과

계획대비 프로젝트 실현 정도 :

초기 계획 및 예산 대비 프로젝트의 내용과 질적인 수준이 모두 적절하게 구현이 되었는가?
기획했던 프로젝트 및 세부 프로그램들을 모두 계획대로 운영하였는가?

사업 지역 내 문화예술적 변화의 정도 :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및 커뮤니티 속 문화예술적 공감대가 확장되고 변화하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인가?

기대하던 방향으로 사업 진행을 완료 하였다.

홍보 성과

사업기획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효과성 :

사업 기획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웠는가? 그 홍보 방식이 외부 단체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나?

지역 내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노력도 :

지역 내 단체 및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는 어느 정도 노력하였는가?

그 홍보의 방식은 효과가 있었는가? (기사, SNS, 오프라인 홍보물 등)

워크숍은 시각 장애인의 개인적 영역을 배려하기 위해 당사자와 가족들만 초청하여 진행하였고, 전시는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관람했다.

파급효과적 측면 - 단체의 성장

단체의 역량 강화의 정도 :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지역 및 커뮤니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가?

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었는가?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

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지속적인 프로젝트 및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방법 및 고민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가?

현재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 상태다.

해당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한 영향력

이슈 키워드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기여도 :

기존에 선택하였던 사회 이슈 키워드 및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문제에 대해서 단체가 목표한 결과 및 성과가 효과적이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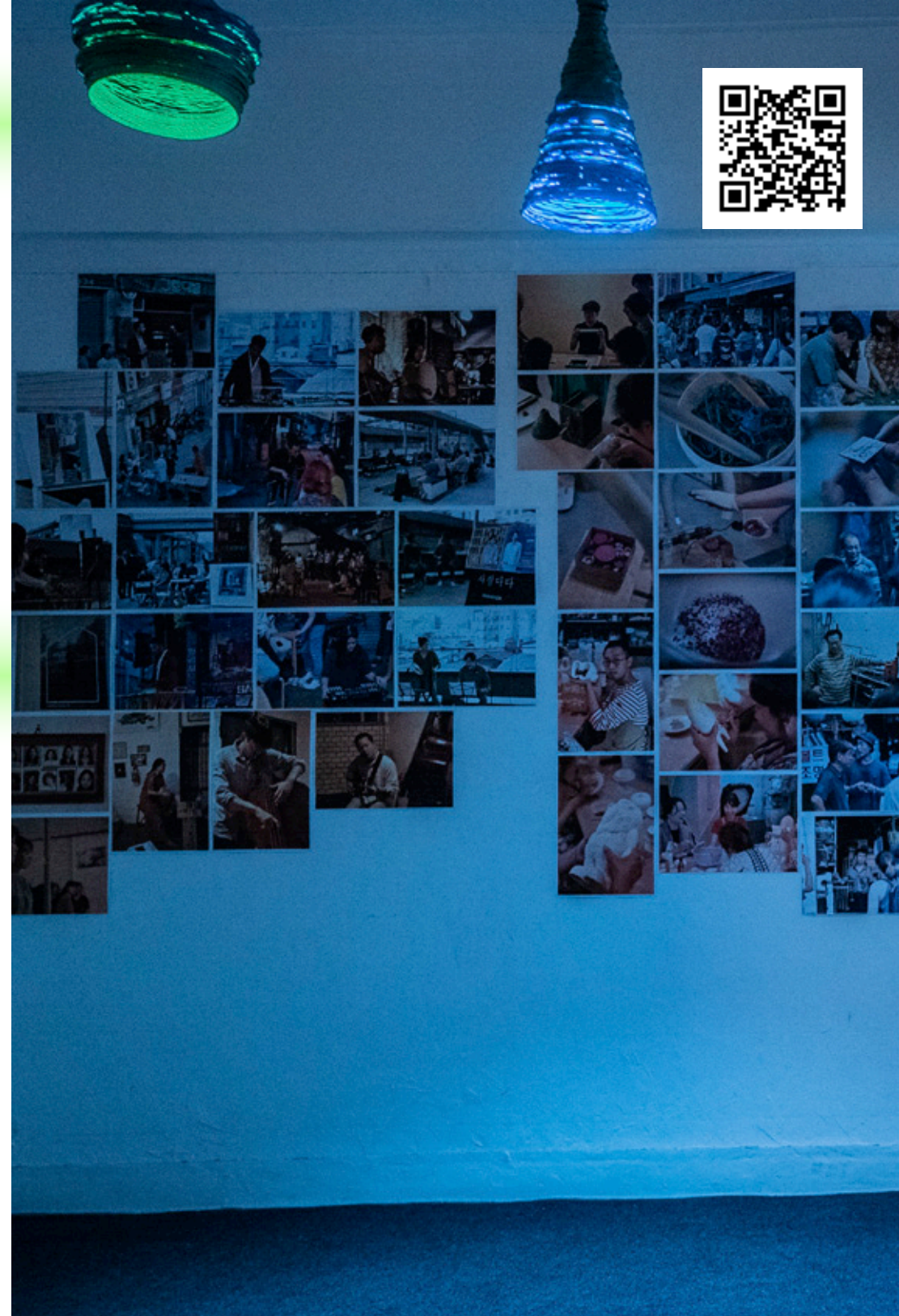
해당 이슈에 대한 고민의 깊이 :

사회적 이슈와 키워드에 대해서 단체만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였던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시각 장애인과 가족들, 복지관 및 전시 관람자분들의 반응을 보았을 때 이 워크숍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알3028

R3028



R3028에게 소셜프로젝트는
취향의 공유이다.

지역과 사회에 예술이 주는
영향을 연구하고 실현하는
작가들이 자신이 느꼈던
취향을 공유해 나가면서,
비예술인에게도 그러한 취향을 125
환기시키고 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셜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저장물 위한 예술 R3028

설립연도 2015년
법적형태 고유번호증
단체규모 3명
활동분야 #도시재생 #예술창작 #예술교육 #콜라보 #공유
홈페이지 www.r3028.com



인영기전
2273-9732

2273-9732



‘R3028’은 ‘세상을 위한 예술’을 지향합니다. 예술이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공연장, 전시장을 넘어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합니다. 현재 을지로를 중심으로 펼쳐진 도심 제조업 단지의 가치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의 취향(趣向)을 통해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만 불린 낡은 도심이 역사를 품은 문화 공간이 되고, 제조 공장 ‘산업 종사자’들이 ‘장인’으로서 자본 지향의 사회 속에서 놓쳐온 가치를 돌아볼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과 예술가를 연결해 지난 시간 땅이 품어온 문화적 잠재성이 꽃필 수 있도록, 그 꽃에서 핀 향이 도시를 채워나가는 취향(醉香)이 될 수 있는 시도를 지향합니다.

1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R3028은 2016년부터 3년간 을지로 철공소 골목에서 예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예술이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실용성과 효용성의 기준에서 탈락한 것들이 가진 가치를 공유하고, 의미를 더해갈 수 있는 일이라 판단하여 지역을 기념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을 지속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외부와 소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2 이번에 진행하신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은 <철의 골목을 찾아서>입니다. 6.25 전란 이후 서울을 재건하고 국가를 발전시켜온 을지로 제조업 단지에서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보고, 예술가들의 시선이 어떻게 지역을 조명하는지를 공유하기 위해 전시, 교육, 책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개발 지역으로 치부되던 곳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안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며 예술의 기능과 역할을 고민하는 예술가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길 바랐습니다.

3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제조업 종사자들이 예술가를 대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고, 다양한 사람들의 유입으로 골목에 생기가 더해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3년간의 활동을 통해 축적된 팀원 개개인의 관점을 깊이 있게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각자가 지향하는 예술에 따라 예술가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예술가들의 작업이 다양한 이들과 공유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2019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난 프로젝트와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공간을 공유하고 예술가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9년에는 플랫폼의 성격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간에 관한 지원과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워크숍을 지속해서 기획할 예정입니다.

단체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철의 골목을 찾아서>의 사업리뷰

성과적 측면 / 사업 실현 성과

계획대비 프로젝트 실현 정도 :

초기 계획 및 예산 대비 프로젝트의 내용과 질적인 수준이 모두 적절하게 구현이 되었는가?

기획했던 프로젝트 및 세부 프로그램들을 모두 계획대로 운영하였는가?

지역의 산업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계획한 사업들을 모두 시행했다. 소속 작가들은 총 3권의 책을 제작하였고, 지역 외부의 창작자들이 제조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사업 지역 내 문화예술적 변화의 정도 :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및 커뮤니티 속 문화예술적 공감대가 확장되고 변화하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인가?

최근 을지로에 관한 이야기가 눈에 띄게 많이 회자되고 있으며, 서울이 잊어온 시간들의 대안이 되어 줄 수 있는 곳이자 새로운 도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을지로 4가 일대는 불과 4년 전에 재개발이 예정된





곳으로, 70여 년을 이어온 제조업 단지가 공중분해 되지 않고 그곳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주목받게 된 것이다.

얼마전 박원순 시장과 자치구 구청장들이 스페인에 답사를 다녀온 일이 있다. 이때 현지 인솔을 담당했던 대표가 11월 한국을 방문하였고, 중구청장과 함께 산림동 제조업 단지를 찾아와 작가들의 활동 현장, 산업과 협업해서 일궈온 것들을 함께 돌아보았다. 중구청장이 수줍게 “우리 산업 단지는 스페인에 비해 작은 단위로 진행 중”이라는 말을 건넸지만 함께 방문한 대표는 산림동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더 큰 힘으로 오래오래 전해질 것 같다며 지역이 만들어온 가치에 감동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도시계획이 변하고 있다. 서울의 구도심 어느 한 블록은 지켜야 하지 않겠냐, 그게 산림동이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지역의 장인들이 변하고 있다. 재개발의 피해자가 될 뻔 했던 장인들, 외부인의 유입을 원하면서도 변화를 경계했던 장인들이 젊은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기다리고, 자신의 결과물을 자랑거리로 삼으며 자신의 일을 후손들이 물려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층 역시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낯설고 무서워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골목에 청년 예술가를 보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서 찾아오고, 장인들과 함께하면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변화에 공감하고 있다. 이제는 작가들이 발견한 취향에 공감해 서울의 근현대사가 담겨 있는 을지로의 모습을 아끼게 되었다.

홍보 성과

사업기획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효과성 :

사업 기획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웠는가? 그 홍보 방식이 외부 단체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나?

지역 내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노력도 :

지역 내 단체 및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는 어느 정도 노력하였는가?

그 홍보의 방식은 효과가 있었는가? (기사, SNS, 오프라인 홍보물 등)

홍보는 주로 SNS를 통해 이루어졌다. 워크숍마다 15명~20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을지로의 제조업 단지 지역을 잘 알지 못하거나 접해보지 못한 단체를 참가 대상으로 삼았으며, 대부분 목표한 대상이 모집되었다.

파급효과적 측면 - 단체의 성장

단체의 역량 강화의 정도 :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지역 및 커뮤니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가?

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었는가?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

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지속적인 프로젝트 및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방법 및 고민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가?

을 한해 진행한 사업을 통해 단체의 성장 방향이 더 명확해졌다. 지역의 역사와 예술, 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한 해였다. 본 단체는 앞으로도 계속 구도심에서 예술가들의 창작을 지원하고자 한다.

해당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한 영향력

이슈 키워드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기여도 :

기존에 선택하였던 사회 이슈 키워드 및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문제에 대해서 단체가 목표한 결과 및 성과가 효과적이었는가?

해당 이슈에 대한 고민의 깊이 :

사회적 이슈와 키워드에 대해서 단체만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였던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서울은 욕망을 먹고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도시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직면하였다. 변화한 공간만큼 우리 삶의 방식도 달라지면서 많은 부작용이 수반되었다. 진부해진 사회 문제들은 해결법도 없이 우리를 피로하게 만들어왔다. 이에 대한 대안이 예술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한국 사회에서 경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오염된 예술이 아닌, 진짜 예술로 말이다.

사업 대상지였던 을지로 산림동 일대 역시 그러한 욕망을 위해서라면 없애는 편이 더 좋아보였을지 모른다. 지자체는 재개발 사업 실패 뒤에서야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예술가들을 공실에 입주시켰다. 하지만 정책 실행의 속내와는 무관하게 예술가들의 눈을 통해 발견된 취향은 든든한 조력자들의 지원을 받아 생명력을 얻었고 절망이 만연했던 곳에 새로운 기운이 퍼지도록 만들었다. 2016년 서울 시청에서 열린 포럼이 있었다.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부동산에 관해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당시 처음 을지로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예술가로서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있었다. 예술을 통해 산림동이 '옥바라지 마을'처럼 재개발로 잊히길 원치 않았고, '이화동 벽화마을'처럼 원주민을 공격하길 원치 않았다. 포럼에서 어떻게 하면 예술과 제조업, 구도심이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그때 문래동에서 활동하시는 한 분이 화를 냈었다. "지역과 예술이 상생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기다. 당신이 그 지역에서 작업실 밖에 나가 무엇이든 하는 순간 그 동네는 망가질 것이다. 사기 치지 마라."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가 틀렸다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을지로의 예술가들은 지역을 귀하게 여겼다. 그들이 아낀 지역엔 마을, 오래된 시간, 숙련된 기술이 있었다. 귀하게 여긴 것들과 소통하고 가치를 강화했다. 예술이 등지를 튼 지 3년, 지역엔 더 많은 제조업 혹은 그와 연관된 업종들이 들어오고 강화되었다. 지자체의 여러 부서가 예술가들과 협업하고 싶어한다. 이제 말할 수 있다. 그가 틀렸었다고. 사기를 친 것이 아니고 꿈꾸고 실천한 이가 없었을 뿐이라고.

우리마을 탐구생활





‘우리마을 탐구생활’ 프로젝트는 우리 주변을 관찰하고 대화하며 자발적으로 지역을 학습할 수 있는 즐거운 놀이 도구를 만듭니다.
기존에 해방촌과 후암동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단체와 주민들이 모여 만든 프로젝트팀입니다.

우리마을 탐구생활에게
소셜프로젝트는 날개이다.

141

소셜프로젝트를 만나면서
저희가 계속 미뤘었던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게 저희에게 굉장히 큰 날개를
달아 준 것 같아요.

141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된 것 같습니다.

설립연도 2018년
법적형태 고유번호증
단체규모 3명
활동분야 #자발적 마을학습 #자발적 마을예술놀이
#우리마을 탐구생활
#마을기록놀이 #마을문화예술놀이



해방초
수강학교

우리마을 탐구생활
해방초-푸암동편

[우리마을 탐구생활] 프로젝트는
우리 마을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원을 통해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고 이를 전하는 일을 한다.
우리마을의 역사·문화를 이해, 수집, 기록하고
"우리마을의 역사·문화를 이해"의
공을 저지자 100주년

소말로22길
26-16



1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 지역에서 6년 가까이 거주하며 우리 마을이 흥미로운 이야기와 다채로운 예술적 모티브를 가진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에 대해 교육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프로그램의 질은 매우 낮은 것을 알게 되었고, 교사들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여력까지 갖추기 힘든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발행한 지역 교육 자료는 그 공간적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어려운 용어로 구성되어 지역에 대한 흥미와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2 이번에 진행하신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해방촌’과 ‘후암동’이라는 마을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을교육 키트’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기존 마을에 관한 자료와 각자의 활동, 작업을 토대로 마을을 보는 15개의 방법론을 정리했습니다.

3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참여자들과 <마을예술놀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결과물이 가진 의미보다 워크숍 진행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방법론이 신선했고, 즐거웠습니다. ‘마을에서 놀기’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도구를 만들게 된 것 같아 성취감이 큼니다.

4 2019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할 만큼 낙후된 주거지에서, 다른 마을에 없는 보석 같은 자원들을 발굴하고 이러한 안목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용 자료를 지속해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마을교육 키트로 지역의 학생들과 만나는 즐거운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교뿐만 아니라, 지역 연계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마을에 거주하는 이주민 가족을 위한 번역본이나, 연령별로 더 맞춤형된 교안을 만드는 등 키트를 좀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과적 측면 / 사업 실현 성과

계획대비 프로젝트 실현 정도 :

초기 계획 및 예산 대비 프로젝트의 내용과 질적인 수준이 모두 적절하게 구현이 되었는가?

기획했던 프로젝트 및 세부 프로그램들을 모두 계획대로 운영하였는가?

사업 지역 내 문화예술적 변화의 정도 :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및 커뮤니티 속 문화예술적 공감대가 확장되고 변화하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인가?

초기 기획하였던 프로젝트의 성과물보다 성과물 자체에 대한 질적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워크숍 분야와 참여자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내부의 성과 공유회 일자를 불가피하게 조정했지만, 계획보다 참여자가 더 많이 확보되어 다방면으로 마을을 볼 수 있는 도구를 마련했다는 데 큰 성취감을 갖고 있다.

홍보 성과

사업기획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효과성 :

사업 기획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웠는가? 그 홍보 방식이 외부 단체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나?

지역 내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노력도 :

지역 내 단체 및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는 어느 정도 노력하였는가?

그 홍보의 방식은 효과가 있었는가? (기사, SNS, 오프라인 홍보물 등)

마을에 거주하거나, 작업하거나, 또는 일하고 있는 분들이 주축을 이루어 성과물을 제작하였기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는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의 예술가, 각 분야의 전문가, 학생, 일반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함께 완성하기 위해 마을 단체들에 홍보하고, ‘마을 일기 모으기’ 등 참여를 유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파급효과적 측면 - 단체의 성장

단체의 역량 강화의 정도 :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지역 및 커뮤니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가?

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었는가?

늘 과정에 치우친 활동을 하던 단체가, 결과물을 제작하기 위해 시작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대했던 성과물보다 질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다. 특히 ‘지역교육’이라는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시작점이 생겼다는 것에 단체 내부적으로 큰 성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

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지속적인 프로젝트 및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방법 및 고민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가?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마을교육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결과물이 현장에서 실제 쓰임이 있도록 만들어가는 ‘즐거운 과정’이 남아 있으며, 이 즐거운 과정을 수행하면서 단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한다.

해당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한 영향력

이슈 키워드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기여도 :

기존에 선택하였던 사회 이슈 키워드 및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문제에 대해서 단체가 목표한 결과 및 성과가 효과적이었는가?

마을교육의 한계와 이에 대한 갈등을 시작으로, “놀이의 방법”으로 재해석한 마을교육 교재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놀이의 방법’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을 제작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좀 더 쉽게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용 도구를 만들었다고 자신한다.

해당 이슈에 대한 고민의 깊이 :

사회적 이슈와 키워드에 대해서 단체만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였던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도구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성인, 유아, 교사와 같은 다양한 계층을 만나야겠다는 필요성과 더 넓은 방향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느끼게 되었다.

을지로 르네상스





기획자, 작가, 사진가, 인테리어 감리, 목수로 구성되어
각자의 분야에서 습득한 기술을 주어진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팀

을지로 르네상스에
소셜프로젝트는 품앗이다.

153

품앗이는 서로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 서로 윈-윈(win-
win)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장애인들은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작가들은 신체적인 특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모델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필요가 맞아 협업이 잘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153

설립연도 2013년
법적형태 고유번호증
단체규모 6명
활동분야 #전시 #공간조성 #공공미술



Onground Project Space





1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어색함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 어색함은 결국 서로를 너무 모르기에 생겨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안하고 싶었고 이를 통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의견을 나누고 부딪히고 고민하는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2 이번에 진행하신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총 7인의 장애인과 2명의 작가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이 필요한 가구와 작가가 구상한 작품 사이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을 공유하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3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장애인과의 외부 만남이 많았습니다. 약속장소를 잡을 때 보니 공교롭게도 즐겨가는 모든 장소(카페, 레스토랑)가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도움을 주어 들어간다고 해도 화장실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우리 사회에 아직 큰 숙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4 2019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장애인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을 폭넓게 하고 싶습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동정 어린 시선으로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가장 큰 편견일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장애는 병도 아니고 극복할 것도 아닌,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며 비장애인 역시 언젠가는 장애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고 떳떳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아주 많고, 비장애인도 언젠가는 장애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장애) 선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흥미로운 전시를 기획하고 싶습니다.

성과적 측면 / 사업 실현 성과

계획대비 프로젝트 실현 정도 :

초기 계획 및 예산 대비 프로젝트의 내용과 질적인 수준이 모두 적절하게 구현이 되었는가?

기획했던 프로젝트 및 세부 프로그램들을 모두 계획대로 운영하였는가?

지원했던 예산에 비해 많이 삭감된 지원금을 받았고, 이에 따라 초기에 세웠던 예산의 인건비와 재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한정된 지원금을 다수에게 지원하다 보니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원금 교부 신청시 예산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단체의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계획 대비 프로젝트 실현 정도’에는 이상이 없도록 진행함을 목표로 하였고, 초기 계획과 큰 차이 없이 완료하였다.

사업 지역 내 문화예술적 변화의 정도 :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및 커뮤니티 속 문화예술적 공감대가 확장되고 변화하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인가?

일반적인 기획전의 눈높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장애인 관련 전시를 만들겠다는 목적 아래 성과가 있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을 도와주는’과 같은 수식어에서 벗어나 장애인, 비장애인이 각자의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상호 보완하고, 교류하는 지점을 만들었다.

홍보 성과

사업기획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효과성 :

사업 기획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웠는가? 그 홍보 방식이 외부 단체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접하는 매체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다.
기존의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매체는 장애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미디어가 많았으므로 각각 다른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물론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다양하게 홍보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역 내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노력도 :

지역 내 단체 및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는 어느 정도 노력하였는가?

그 홍보의 방식은 효과가 있었는가? (기사, SNS, 오프라인 홍보물 등)

몇몇 언론사 사회부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고 이 기사를 계기로
라디오 방송 출연을 의뢰받기도 했다. 방송에서 주로 받았던 질문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좋은(?)일을 하게 되었는지?”, “왜 장애인에게
가구를 만들어 주게 되었는지?” 등이었고 이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파급효과적 측면 - 단체의 성장

단체의 역량 강화의 정도 :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지역 및 커뮤니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가?

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었는가?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

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지속적인 프로젝트 및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방법 및 고민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가?

을지로 르네쌍스는 다양한 사회 문제와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장애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인식’에 대해 작업을 하게 되었다.
장애의 범위, 장애의 인식,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흐름에 발맞추어 패턴화되지

않은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해 향후 더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팀이 되고자 한다.

해당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한 영향력

이슈 키워드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기여도 :

기존에 선택하였던 사회 이슈 키워드 및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문제에 대해서 단체가 목표한 결과 및
성과가 효과적이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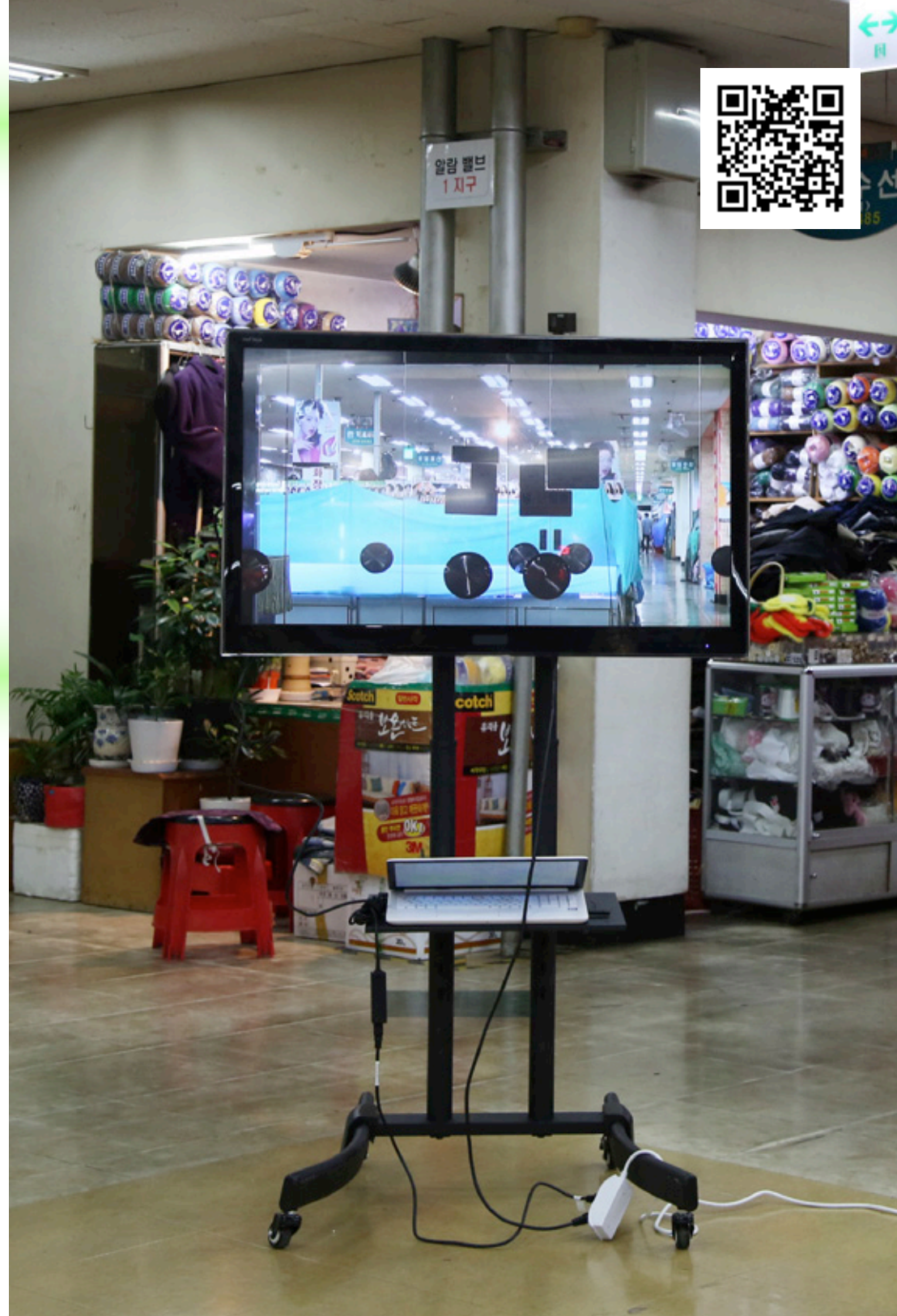
장애인 문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미성숙한 인식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는 서로를 잘 알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해당 이슈에 대한 고민의 깊이 :

사회적 이슈와 키워드에 대해서 단체만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였던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비장애인은 극단적인 소수이고, 비장애인
대부분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장애인을 바라본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무조건 도움을 주고 배려하며 양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때에 따라 필요하기도 하지만,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기에 이런 선의의 관념이 간혹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더 큰 괴리감을 만들기 일쑤이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마련하여, 그 괴리감을 덜고자
했다.

임팩트 스테이션





지역에 창의성과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청년전문가의 육성 및 현장 배치, 지역 자원에 기반한 도시재생, 지역문화 활성화, 유취공간 활성화 등 지속적인 지역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청년소셜벤처 인큐베이팅 및 성장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함.

임팩트스테이션에게
소셜프로젝트는 연결이다.

167

유진상가 구성원 가운데
아파트 주민들, B동의 공공
공간을 활용하는 청년들,
3층의 입주 기업들은 각자의
동선에서 분절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중앙정원에서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연결을 만들어 냈습니다.

167

설립연도 2017년
법적형태 법인사업자
단체규모 25명
활동분야 #도시재생 #지역문화 #청년 #생태계조성 #인큐베이팅
홈페이지 www.impacty.kr



1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전부터 서대문구 기반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면서 '유진상가'라는 공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상반기부터 '무중력 지대 서대문'을 위탁운영 하게 되었고, 유진상가 B동 2층에 무중력 지대가 위치하게 되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중력지대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유진상가는 기존 주민과 상인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동떨어져 활동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주민, 상인들과의 연결 또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이번에 진행하신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유진상가 일대에서 14팀의 아티스트 참여로 진행했고 가장 중심이 된 공간은 2층 중앙정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2일과 3일에 대부분의 공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고 공연프로그램 8팀, 전시 및 퍼포먼스 6팀이 작품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홍제동 일대를 산책하면서 아티스트들이 마련한 장치 또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유진상가 산책: 또 다른 기다림 - PROJECT 시간>이 있었고, 1층 상가에서부터 상점들의 이야기를 담은 참여형 뮤지컬 공연 <시간의 조각- 유진프로젝트_시간>이 있었습니다.

3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상가 건물이 생긴 이래 처음 2층 중앙정원에서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라 혹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자리를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여름에는 주민들께 콩국수를 대접하고, 중앙정원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나 바람을 담은 소규모 공연을 진행했으며 간담회도 여러 차례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본 프로젝트에도 많은 주민들이 관객으로 적극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보다도 참여자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주민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4 2019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사업을 지속하면서 청년예술가, 지역 기반 작업을 하는









예술가, 기획자들의 작업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단체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유진상상>의 사업리뷰

성과적 측면 / 사업 실현 성과

계획대비 프로젝트 실현 정도 :

초기 계획 및 예산 대비 프로젝트의 내용과 질적인 수준이 모두 적절하게 구현이 되었는가?

기획했던 프로젝트 및 세부 프로그램들을 모두 계획대로 운영하였는가?

사업 지역 내 문화예술적 변화의 정도 :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및 커뮤니티 속 문화예술적 공감대가 확장되고 변화하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인가?

초기 단계에서 기획한 프로젝트 중 일부 수정한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잘 실현하였고, 그 결과도 기대했던 만큼 만족스러웠다. 예술적 소통이 전혀 없었던 공간에서 문화예술 콘텐츠를 구현함으로써 주민들과 청년들이 함께 만나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홍보 성과

사업기획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효과성 :

사업 기획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웠는가? 그 홍보 방식이 외부 단체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나?

지역 내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노력도 :

지역 내 단체 및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는 어느 정도 노력하였는가?

그 홍보의 방식은 효과가 있었는가? (기사, SNS, 오프라인 홍보물 등)

온라인에서는 <유진상상프로젝트> SNS 계정과 여러 문화예술 관련 사이트에 홍보했다. 오프라인 홍보는 주로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중앙정원, 유진상가, 유진멘션 등의 공간에 홍보물을 부착하여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냈다. 그에 비해 인근 상가나 아파트에는 홍보가 다소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파급효과적 측면 - 단체의 성장

단체의 역량 강화의 정도 :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지역 및 커뮤니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가?

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었는가?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

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지속적인 프로젝트 및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방법 및 고민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가?

<유진상상프로젝트>를 통해 유진상가 주민들로부터 우리 단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직접적인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보다는 유진상가에 대한 연구나 지역문화생태계조성사업을 지속하면서 청년 예술가, 지역 기반 작업을 하는 예술가, 기획자들의 작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해당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한 영향력

이슈 키워드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기여도 :

기존에 선택하였던 사회 이슈 키워드 및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문제에 대해서 단체가 목표한 결과 및 성과가 효과적이었는가?

해당 이슈에 대한 고민의 깊이 :

사회적 이슈와 키워드에 대해서 단체만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였던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단체의 기존 목표는 유진상가 내의 여러 유휴공간을 문화예술적으로 재해석하고, 다양한 입주자들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또한, 실험적이거나 창의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삶의 공간에서 선보이고자 하는 목표도 있었다. 단체는 그러한 목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충분히 고민했고 이를 통해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보이스



gvoice



지보이스에게 소셜프로젝트는 동력이다.

예술을 통해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 나갈 동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183 소셜프로젝트의 공공 기금을 통한 금전적 지원으로 사람과 단체, 사회 운동이 상생하며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동력을 얻었습니다.

설립연도 2003년
법적형태 고유번호증
단체규모 40명
활동분야 #성소수자 #합창 #케이코러스 #자력화 #인권
페이스북 facebook.com/gvoiceseoul

지보이스는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합창 소모임으로,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래하며 성장하는 게이 포러스입니다.



1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게이 코러스”라는 정체성 기반의 사회적 문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사하게 정체성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 단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들의 활동 사이에 유사한 감각이 있지 않을까, 그 감각에 서로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출발하였습니다. 사전 워크숍으로 진행한 포럼에서 ‘장애여성공감’(일곱 빛깔 무지개, 춤추는 허리), ‘아시아인권문화연대’(이주민 청소년 뮤지컬), ‘퀴어문화축제’(퍼레이드, 영화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무대에 서는 것을 통하여 자력화(empowerment)되고, “다름”과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으며, 그 활동은 설득과 소통에 기반하고 있다는 공통점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가 함께했을 때 생기는 상승효과에 대한 기대를 얻었습니다.

2 이번에 진행하신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폭풍공감〉 프로젝트는 10월 13일 마포아트센터에서 진행된 2시간 동안의 공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대는 연합 합창과 각 단체의 개별 합창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단체가 가진 이야기들이 점차 쌓여 하나의 큰 목소리가 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무대뿐 아니라 무대에 서기까지의 과정에 더욱 집중하여, 합동 연습과 그 사이 단체 간에 어떤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하며 워크숍, 상영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네트워킹의 시간 또한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연대”에 대한 질문이 대두되는 시대에, 연대의 의미를 다시금 근원으로부터 찾고자 하였습니다. 정체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모였으나, 그 정체성들을 호명하는 것만큼이나 “한 목소리”의 감각을 강조하였던 것은, 즉 연합합창이어야 했던 이유는, “정체성”은 하나가 아니고, 서로 겹치고 이어지며, 연대는 “나”의 바깥에 있는 타자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는 것이라는 공감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3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공연 레퍼토리 중 연합합창의 엔딩곡 “그날이 오면”에서 앙코르곡 “세상아 너의 죄를 사하노니”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번 공연의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날”에 대한 열망을 한 목소리로 외칠 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겨납니다. 무대가 아닌 광장에서 모두가, 국민이, 시민이, 내일에 대한 열망을 말할 때, 성 소수자도, 장애인도, 이주민도, 여성도, 모두 그 광장에 있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자들의 외침은 중요하지 않거나, 너무 급진적이거나, 나중에 이루어져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는 합니다. 그 광장에 모두가 있었음을, 그 목소리들이 존재했음을 아는 것은 그렇기에 중요합니다. 노란 깃발들 사이로 색색의 깃발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폭력과 편견, 혐오 속에서 스러져간 자매, 형제들의 뜨거운 눈물을 기억합니다. 민주화의 열망을 이야기하는 노래 “그날이 오면”이, 그 광장에 항상 있었으나 보이지 않았던 이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미 스러졌을, 의미가 다 했을 노랫말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할 수 있습니다. 열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4 2019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소수자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수자이기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 소수자들에게 세상은 위협적인 공간입니다. 일상과 인터넷 댓글에서부터 혐오가 만연하고, 퀴어퍼레이드는 자긍심의 공간이 아니라 혐오를 확인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보이스는 성 소수자들이 혐오를 잊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점차 강해지는 성 소수자를 향한 혐오에 맞서, 노래로써 커뮤니티에 더욱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그간의 무대 활동뿐 아니라 영상 등,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미디어를 통한 활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풍공감>을 통해 확인했던 연대가 현장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합동공연, 콜라보레이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단체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폭풍공감 프로젝트>의 사업리뷰

성과적 측면 / 사업 실현 성과

계획대비 프로젝트 실현 정도 :

초기 계획 및 예산 대비 프로젝트의 내용과 질적인 수준이 모두 적절하게 구현이 되었는가?

기획했던 프로젝트 및 세부 프로그램들을 모두 계획대로 운영하였는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기간 내에 모두 무사히 마쳤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체가 함께 하다 보니 스케줄 조정 및 고려할 사항이 많았으나,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적절하게 잘 실행했다고 생각한다.

사업 지역 내 문화예술적 변화의 정도 :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및 커뮤니티 속 문화예술적 공감대가 확장되고 변화하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인가?

지역 내 문화예술적 변화의 정도는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불분명한 점이 있어 평가에 어려움을 느꼈다. 다만 ‘소수자&약자’라는 포괄적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성 소수자’, ‘장애인’, ‘여성’, ‘이주민’이라는 다소 이질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각각 커뮤니티들의 공감대를 만들 수 있었던 기회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홍보 성과

사업기획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효과성 :

사업 기획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웠는가? 그 홍보 방식이 외부 단체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나?

SNS, 유튜브, 언론사,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영상물, 사진, 기사를 기재하고 홍보에 활용했다. 팔로워들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SNS 유료 타겟 홍보를 진행하여 평소 소수자 인권 이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대상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다. 한겨레 신문사에 <“차별과 혐오에 노래로 맞선다” 소수자 연대 첫 합창 공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인권 이슈에 대해서 알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지역 내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노력도 :

지역 내 단체 및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는 어느 정도 노력하였는가?

그 홍보의 방식은 효과가 있었는가? (기사, SNS, 오프라인 홍보물 등)

지역 내 홍보로는 종로 일대에 있는 업소를 방문하여 포스터를 부착하였다. 성 소수자 친화적인 업소들에 홍보함으로써 지역 내 인지도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파급효과적 측면 - 단체의 성장

단체의 역량 강화의 정도 :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지역 및 커뮤니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가?

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었는가?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

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지속적인 프로젝트 및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방법 및 고민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가?

단체에서 기존에 공연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부 역량의 큰 성장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다만 서울문화재단 리뷰위원들과 함께한 미팅에서 나왔던 이야기들(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공연 수익화 등)을 토대로 새로운 고민을 할 수 있었고, 다른 여러 단체와 함께 공연을 올렸던 경험을 통해 앞으로 단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그곳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소수자들의 연대'라는 가능성을 새롭게 확인한 기회였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해서 연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씨앗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원금 없이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판단한다.

해당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한 영향력

이슈 키워드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기여도 :

기존에 선택하였던 사회 이슈 키워드 및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문제에 대해서 단체가 목표한 결과 및 성과가 효과적이었는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관객으로 참여했던 지인들에게 많이 들은 말은 '소수자들의 연대'라는 기획이 가장 인상 깊었다는 것이었다. 지인들은 평소 성 소수자를 비롯하여 소수자 이슈에 대해서 아주 적은 정보를 듣는 편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자들의 연대'라는 메시지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고 이 프로젝트를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한번의 프로젝트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작게 느껴지지만, 관객으로 왔던 사람들에게 모두가 차별 없이 살기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화두를 던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

해당 이슈에 대한 고민의 깊이 :

사회적 이슈와 키워드에 대해서 단체만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였던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지보이스가 10여 년간 공연을 하면서 여러 단체에 대한 연대의 뜻을 표하고 함께 올린 공연이 다수 있었지만 이렇게 연대를 위한 판을 만드는 기획은 처음이었다. 그와 동시에 게이아닌 다른 여러 커뮤니티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공연도 처음이었는데, 이제까지 머리로만 이해했던 '연대'라는 단어의 의미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연대를 떠올리면 많은 이들이 함께하기에 좋은 점만 먼저 생각했기에 그만큼 각 단체들 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고, 나아가는 속도도 더디고 무엇 하나 결정하기 쉬운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는 강력했다. 프로젝트가 끝난 지금의 시점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깊은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지역 커뮤니티 단체입니다.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에게
소셜프로젝트는
네트워크의 확산이다.

소셜프로젝트는 자원봉사자,
문화재, 미술인과 같은 지역
안팎의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셜프로젝트는
이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를
계속해서 가꿔 나가야 하는
사람들 간 인적 네트워크의
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립연도 2016년
법적형태 고유번호증
단체규모 110명
활동분야 #매거진 #축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활성화 #도시재생 #커뮤니티활성화
홈페이지 www.11dongne.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11dongne





1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는 지역의 정체성이 지나온 시간과 그 시간에 쌓인 이야기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환경 재생 사업 외에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무형적 자원을 가시화하는 일, 즉 잊힌 역사와 문화를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살아있는 역사자원(Living Heritage)”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자산을 지역 활성화와 재생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마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2 이번에 진행하신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떠들썩하게 많은 사람이 와서 즐기는 행사보다는, 지역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담아내는 자리를 기획했습니다. 축제는 크게 메인 프로그램, 서브 프로그램, 시민체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진행했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은 연극, 음악, 무용, 나레이션, 체험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한 “보이는 역사”로, 서울시 내 5개 대학교의 연극동아리와 창덕궁 길라잡이 해설사들의 안내로 준비했습니다. 서브 프로그램은 지역 음악인들의 참여로 지역의 소극장을 활성화하여, 향후 지속성을 얻고자 했던 프로그램 “아리랑”을 주제로 재즈, 판소리, 국악 악기로만 1시간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재즈밴드는 낙원동의 ‘천년동안도’에서 공연하는 밴드로, 판소리는 지역의 서도소리 문화재인 한명순 선생님과 제자들이, 국악 악기는 지역의 국악교습소인 ‘국악이 꽃피는 나무’에서 준비했습니다. 3개의 팀 모두 1시간의 아리랑 공연을 위해 별도의 편곡을 준비했으며, 의상, 악기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는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기대 인원은 100명 정도였으나, 실제 참여 인원은 65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함께 온 부모 등을 고려하면 총 150여 명 정도의 인원이 10월 3일 하루를 열하나 동네 곳곳에서, 그림도 그리고, 장소를 돌아보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3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차근차근 해결하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비어천길’ 코스 개발자가 갑자기 코스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하여 인쇄 직전 포스터 내용을 수정하고,





다른 코스로 준비했던 일. 운현궁, 덕성여대 등에서의 장소 사용 불허로 인해 운현궁에서 진행해야 하는 연극을 지역의 한옥 게스트하우스 남현당에서 진행했던 일. 10월 6일, 13일 돈화문로에서 종로구청 등 관공서가 준비한 행사가 예정되어, 리허설 때 마이크 사용을 30분 정도 멈춰 달라는 요청에 협의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일 등입니다. 극적인 협의로 프로그램 진행에 문제는 없었으나 자치구가 자신들의 담당 구역 내에서 주민들이 하는 행사에 비협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이는 역사’ 대사의 양이 많아서 리허설 때까지도 배우들이 대사를 다 외우지 못했으나,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완벽하게 대사를 외워서 연기하는 것을 보고 어린 배우들이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단체의 운영위원 다섯 명이 동네를 일일이 다니면서 작은 인포그래픽을 표시하고, 축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깃발을 다는 것을 보면서 단체 핵심 멤버들의 희생과 노력에 감동했으며, 그 외 종로마을네트워크의 지원, 단체 회원들과 연결된 자원봉사자의 사생대회 지원, 창덕궁 길라잡이의 보이는 역사 해설 참여 등에 매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단체 회원 외에도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를 아끼고 응원하는 많은 사람이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 2019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리랑, 탑골공원 연주를 상설화하고, ‘보이는 역사’의 정기적 공연을 위한 복수의 연극 배우팀을 구성하며, ‘올해의 행사’의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싶습니다.

단체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창덕궁 앞 열하나 동네 축제>의 사업리뷰

성과적 측면 / 사업 실현 성과

계획대비 프로젝트 실현 정도 :

초기 계획 및 예산 대비 프로젝트의 내용과 질적인 수준이 모두 적절하게 구현이 되었는가?

기획했던 프로젝트 및 세부 프로그램들을 모두 계획대로 운영하였는가?

사업 지역 내 문화예술적 변화의 정도 :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및 커뮤니티 속 문화예술적 공감대가 확장되고 변화하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인가?

메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보이는 역사’ 연극, 3개의 팀(재즈, 판소리, 국악)이 준비한 아리랑 공연, 사생대회 등은 2018년 바뀐 축제 포맷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실현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한, 코스개발자의 코스사용금지, 사생대회 참가자 수의 미비 등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에 일부 내용이 축소/변경되었으나 질적인 수준에서는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연극, 공연, 사생대회 등을 통해 단체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문화 프로그램의 의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향후 단체의 수익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홍보 성과

사업기획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효과성 :

사업 기획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웠는가? 그 홍보 방식이 외부 단체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나?

사업 시작 당시, 적절한 홍보전략을 수립하지 않았다. 재단의 홍보 지원에 의존적이었던 것 같다. 홍보를 위한 별도의 재정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체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단체와 개인의 SNS 홍보를 시작했고, 보도자료도 배포했고, 리플릿이나 포스터 등을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익선동 중심으로 배포했다.

지역 내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노력도 :

지역 내 단체 및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는 어느 정도 노력하였는가?

그 홍보의 방식은 효과가 있었는가? (기사, SNS, 오프라인 홍보물 등)

올해 행사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의존한 공공기관의 홍보

지원에 대한 기대, 전략의 부재, 실행력의 부재 등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 파급력은 적었으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열하나 동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이었다.

파급효과적 측면 - 단체의 성장

단체의 역량 강화의 정도 :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지역 및 커뮤니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가?

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었는가?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

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지속적인 프로젝트 및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방법 및 고민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단체의 핵심 멤버 7명의 핵심역량이 결집하였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기 위해 운영의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조직 구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1월, 12월 다양한 형태의 수익구조 모델에 대해 자료조사를 하고, 2019년에는 본격적인 회원 전체 간 논의의 장을 가지고자 한다. 단 지역 내 다양한 커뮤니티가 모인 단체의 성격상, 논의의 과정과 합의에 이르는 시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2019년을 단체 조직 정비의 시간으로 갖고자 한다.

해당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한 영향력

이슈 키워드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기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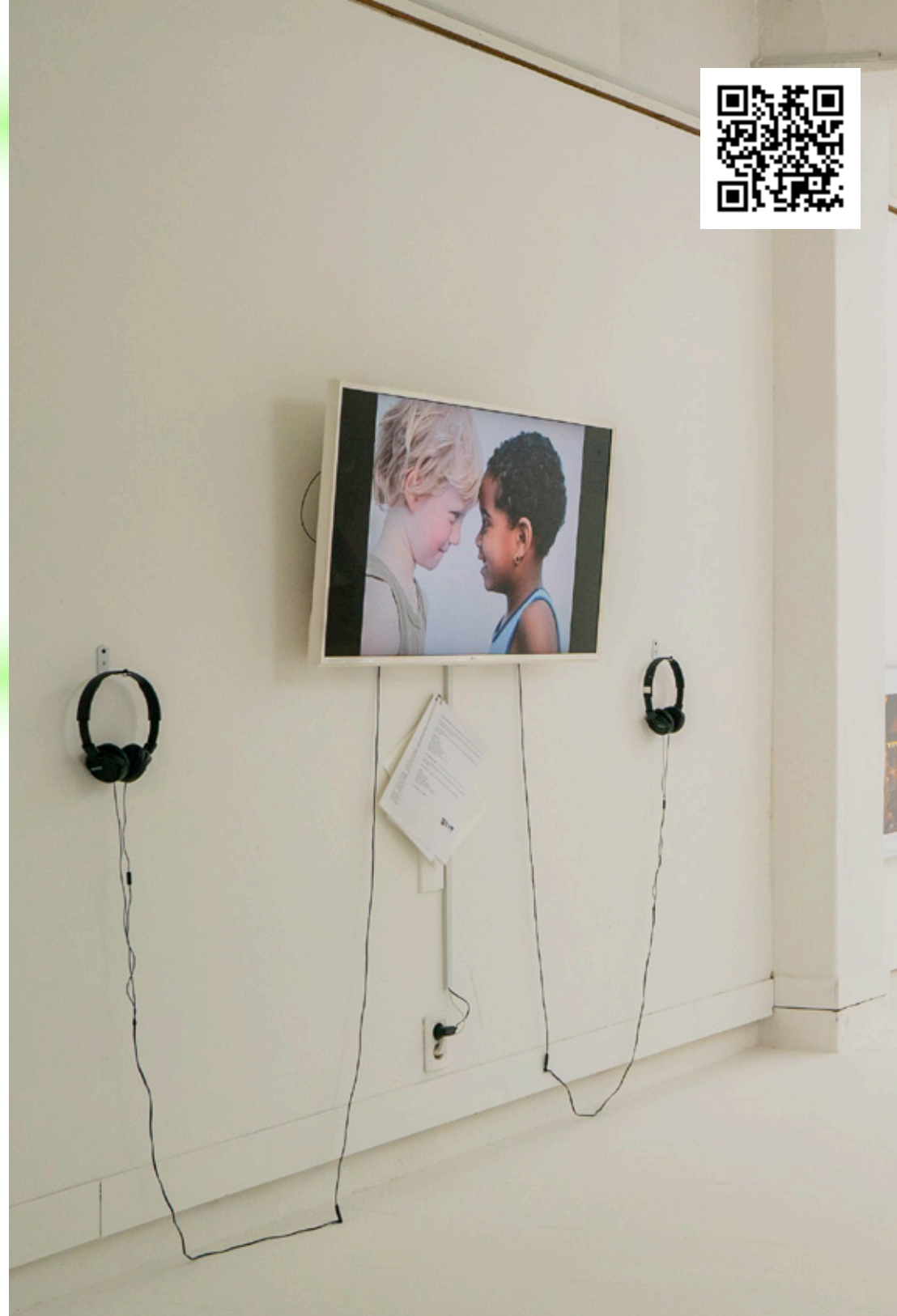
기존에 선택하였던 사회 이슈 키워드 및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문제에 대해서 단체가 목표한 결과 및 성과가 효과적이었는가?

해당 이슈에 대한 고민의 깊이 :

사회적 이슈와 키워드에 대해서 단체만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였던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무형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모니터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홍보를 통한 파급효과와 효율적 전달을 위한 측면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컨템포로컬





컨템포로컬에게
소셜프로젝트는 시작이다.

이번 저희 프로젝트를 계기로
이 담론이 새롭게 이야기될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일윤수종점Tiger1〉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아티스트 뷰오

설립연도 2014년
법적형태 개인사업자
단체규모 3명
활동분야 #창작, #전시기획 #다원예술 #공간운영
페이스북 <컨템포로컬> <범일윤수종점 Tiger1>







1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부부로 이루어진 컨템포로컬의 최대 이슈는 ‘육아’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임신과 출산, 설 틈 없이 이어지는 육아로 인해 우리 부부의 일상은 물론 창작환경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작업실을 아이 어린이집 옆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전시공간 <범일운수종점Tiger1>를 열었습니다. <10 AM to 3 PM> 프로젝트의 주요 테마인 육아는 이 공간을 선택한 우리의 맥락과 일치합니다. 전시공간 주변에 구립 어린이집만 해도 6개가 넘어, 우리의 고민은 지역 안에서 공감을 이끌어내기 수월한 주제였습니다.

2 이번에 진행하신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10 AM to 3 PM> 프로젝트는 육아, 여성, 모성을 동시대 미술로 담론화하고자 합니다. 육아가 지극히 사적인 일로 치부되던 이전과 달리, 저출산 시대를 맞은 지금은 공동육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박육아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자유는 10시부터 3시까지, 아이가 보육 시설에 머무는 동안만 제한적으로 허락됩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놀자, 10 AM to 3 PM> 워크숍과 <까꿍,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등장하기 위함이다>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은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여성 네 명과 함께 총 4회에 걸쳐 육아, 성, 페미니즘, 정체성을 주제로 창작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시에는 배종현·권자연·장보윤·최성균 등 5명(팀)의 부모 작가들이 참여했고, 육아의 경험을 소재로 한 작업을 동시대 미술로 선보여 임신, 출산, 육아를 겪는 여성 작가들의 열악한 상황에 관해 예술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위 전시는 가족과 함께 작업하는 네덜란드 중견작가 실비 지아만스와 헤이월드 율로네일리스(Sylvie Zijlmans, Hewald Jongenelis)의 작업이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3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객원 멤버로 함께한 송하정 매니저의 이야기가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편집 디자이너인 그녀는 회사에 다니다 결혼과 함께 퇴사 후 가정주부로만 살았습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을 야무지게 키우며 특유의 친근함으로 지역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육아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녀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사회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드러낼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여성들과 능숙하게 소통하여 워크숍 홍보에 큰 성과를 올렸고, 워크숍 전문가와 참여자 사이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살림에 능숙한 그녀의 재능은 전시 공간 디스플레이에서도 빛이 났고,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그녀의 가족들이 그녀의 다양한 재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개인의 시간을 갖고 맞벌이 여행연습을 해보는 등,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했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여러 성과를 대표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2019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워크숍은 참가 인원의 한계가 있어 어쩔 수 없었지만, 전시를 더 많은 관객들이 보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저출산과 육아 문제는 금천구를 넘어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동시대의 공감이가 가장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를 지속하여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전시를 열고자 합니다.

또한 책자를 발간하여 이 프로젝트를 하나의 레퍼런스로 체계화하려 합니다. SNS를 통해 육아, 모성에 관한 담론을 계속 연구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후속 프로젝트도 계획 중입니다.

단체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10AM TO 3PM>의 사업리뷰

성과적 측면 / 사업 실현 성과

계획대비 프로젝트 실현 정도 :

초기 계획 및 예산 대비 프로젝트의 내용과 질적인 수준이 모두 적절하게 구현이 되었는가?
기획했던 프로젝트 및 세부 프로그램들을 모두 계획대로 운영하였는가?

사업 지역 내 문화예술적 변화의 정도 :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및 커뮤니티 속 문화예술적 공감대가 확장되고 변화하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인가?



마을의 공유 공간을 대관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후에도 지역 여성들이 공간을 사용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을 제시했다.

홍보 성과

사업기획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효과성 :

사업 기획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웠는가? 그 홍보 방식이 외부 단체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나?

지역 내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노력도 :

지역 내 단체 및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는 어느 정도 노력하였는가?
그 홍보의 방식은 효과가 있었는가? (기사, SNS, 오프라인 홍보물 등)

지역 내 홍보보다는 중앙언론 홍보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에 있어서 재단의 지원이 절실하다.

파급효과적 측면 - 단체의 성장

단체의 역량 강화의 정도 :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지역 및 커뮤니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가?
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술가(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었는가?

본 프로젝트를 통해 <범일운수중점Tiger1> 공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다.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

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지속적인 프로젝트 및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방법 및 고민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가?

앞으로도 육아 이슈를 지속적으로 담론할 예정이다.

이슈 키워드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기여도 :

기존에 선택하였던 사회 이슈 키워드 및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문제에 대해서 단체가 목표한 결과 및 성과가 효과적이었는가?

해당 이슈에 대한 고민의 깊이 :

사회적 이슈와 키워드에 대해서 단체만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였던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본 프로젝트는 미술계에서 나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기획자부터 작가와 전시지킴이까지 모두 육아 당사자로 이루어진 전시였고, 이전에 아무도 이 주제를 기획전으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전시였다는 것의 의의도 크다.

워크숍의 의미에 공감하는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 수요가 있었고, 관련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행인	김중휘(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최 · 주관	(재)서울문화재단

사업총괄	김홍남(지역문화본부장)
기획운영	장재환(지역문화팀장), 유민성(지역문화팀)
코디네이터	윤지하
편집	유민성(지역문화팀)
교열	이산하
디자인	PL13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일	2018년 12월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025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www.sfac.or.kr
www.facebook.com/sfac.socialproject

본 결과집은 무단전제를 금하여,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소셜프로젝트

2018